2026학년도
제5회 인권공모전 출품작 현황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2026학년도 제5회 인권공모전 출품작 현황

1. 응모 부문별 출품 현황

① 숏폼	② 포스터	③ 카드뉴스	④ 에세이
3개	13개	6개	14개
총 36개			

2. 참가 대상별 현황

재학생			교직원		
개인	팀	**합계**	개인	팀	**합계**
22	5	**27**	9	0	**9**

3. 응모주제

- 주제1: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문제
- 주제2: 인공지능(AI)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4.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심사기준	배점
적합성	주제 선정의 적절성 및 내용 전개의 적합성	1~20점
논리성	표현의 설득력 및 메시지 전달의 명확성	1~20점
창의성	표현의 독창성 및 창의성(AI 등을 활용한 경우, 본인의 창의적 기여도 포함)	1~20점
작품완성도	작품의 내용 구성 및 표현력	1~20점
활용성	인권센터 홍보나 교육용으로 활용 가치	1~10점
교육 이수	2026년 폭력예방교육이수 유무(담당자 확인 후 일괄 배점)	미이수: 0점 이수: 10점
총계		**100점**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본 공모전의 취지를 고려하여 1순위로 [활용성] 점수가 높은 작품을 상위 순위로 선정하며, 동점 시 [적합성] → [창의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함

5. 시상내용: 총장 명의의 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각20만원), 장려상 5명(각10만원)

【2026학년도 제5회 인권공모전 출품작】

-참가자별 작품 소개-

① 숏폼 부문

(출품작 수: 3개)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2	재학생	개인	김윤설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얼굴 바뀜 묘사, 영상 보조, AI 얼굴 합성

3. 작품 제목: WHO AM I ?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로 사람의 얼굴을 쉽게 바꾸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실제 모습을 알 수 없는 가상 아이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상에 주목함. 이를 바탕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호의와 얼굴이 계속 바뀌는 면접자라는 컨셉의 영상을 제작함.	-온라인 화상 면접에서 AI에 의해 얼굴이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을 표현함. 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얼굴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함.

5. 출품작

[붙임3] 원본 파일 확인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30	재학생	팀	이윤아 외2	주제2	미사용

2. AI 활용 범위: 해당없음

3. 작품 제목: AI, 모두에게 같은 기회일까?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가 교육 전반에 활용되는 가운데 경제적 환경과 디지털 접근성에 따라 학생들의 AI 활용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는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격차'에 주목하여 제작함.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함.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경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AI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기·교육·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여야 함을 전달하고자 함. 기술의 발전이 일부 학생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함.

5. 출품작

[붙임4] 원본 파일 확인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33	교직원	개인	이다혜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직접 기획한 작품 주제와 스토리, 장면 구성을 바탕으로 일부 장면의 이미 지나 영상 제작, 대사 및 표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함.
전체 작품의 주제 선정, 스토리 구성, 장면별 연출 방향, 내용 수정 및 최종 영상 편집은 직접 진행함.

3. 작품 제목: AI니까 괜찮아?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를 만들고 변형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모습을 재미나 장난의 소재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게 됨. 가벼운 장난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공유되고 웃음의 소재가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친구 사이의 관계까지 어긋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작함.	-친구의 사진을 AI로 변형해 장난스럽게 공유하는 상황을 통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재미일 수 있지만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AI 기술을 사용할 때에도 타인의 이미지와 인격을 대하는 동의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

[붙임5] 원본 파일 확인

② 포스터 부문

(출품작 수: 13개)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	재학생	개인	신채영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이미지 생성, 아이디어 다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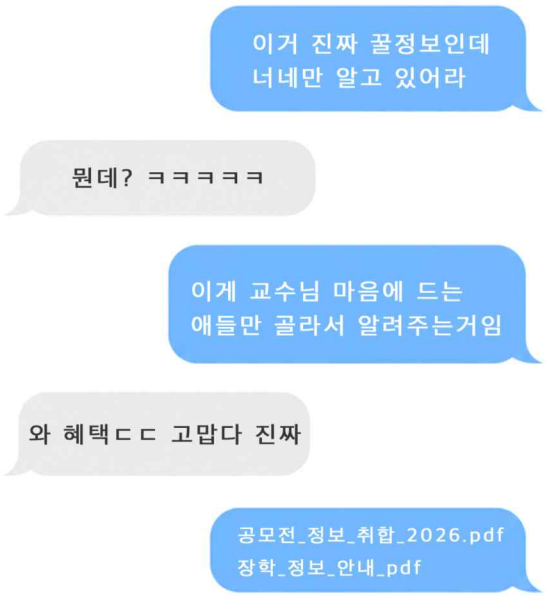
3. 작품 제목: 잠긴 정보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 대학 내 인맥을 통한 기회 정보의 불공정한 공유와 정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자 제작함.	-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친하다는 이유로 좋은 정보를 얻고 누군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함을 강조함. 정보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임을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나요?

정보가 인맥으로만 흘러갈 때 기회의 균등은 사라집니다.
모두에겐 똑같이 시작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E-mail hhrc@hallym.ac.kr
Tel. 033-248-3791~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4	재학생	팀	전수현 외2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아이디어 구상, 카피라이팅, 레이아웃 및 디자인 콘셉트 설정, 캠페인 포스터 이미지 생성

3. 작품 제목: “질문에서 존중으로, 캠퍼스 인권의 길잡이”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 고등학교에는 ‘117’이라는 명확한 신고·상담 창구가 있지만, 대학생은 인권침해 상황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학창시절은 117, 대학교는…?’라는 질문을 담은 캠페인 포스터를 기획함. 대학 내 성희롱, 언어폭력, 갑질, 차별 등의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한림대학교 인권센터가 상담과 지원의 창구가 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자 함.	-대학 내 인권침해는 성희롱·차별뿐만 아니라 갑질, 부당한 요구, 익명 커뮤니티 언어폭력 등 일상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함. “이 정도의 일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 속에 혼자 참고 넘어가지 않도록, 대학에도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학창시절은 117
대학교는...?
학교폭력은 신고망이 있지만, 대학의 인권침해는 어디에 말해야 할까요?
혼자가 아니야, 이젠 말할 수 있어!
학교 폭력
신고, 상담은
117
위계에 의한
성희롱
(교수, 선배, 동아리등)
익명 커뮤니티
언어폭력
(온라인 혐오, 모욕)
갑질
(조별과제, 실습, 연구실 등)
차별
(성별, 장애, 출신, 외모 등)
대학에서도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성희롱·성폭력
"술자리에서 불쾌한 농담과 신체 접촉이 있었어요"
언어폭력·명예훼손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했어요"
갑질·강요
"조별과제에서 무리한 지시와 비해 발언이 이어졌어요"
차별
"성별, 장애, 국적 등으로 차별을 경험했어요"
기타 인권 침해
"나에게도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어요"
한림대학교 인권센터가 함께합니다!
인권침해로 힘들 때, 주저하지 말고 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상담 및 신고 접수
비밀보장 원칙, 안전한 1:1 전문 상담
사실조사 및 구제 절차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모두가 존중받는 캠퍼스 문화를 위해
심리, 의료, 법률 등 연계 지원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으로 제공
당신의 용기가 존중받을 캠퍼스를 만듭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HALLYM UNIVERSITY HUMANS RIGHTS CENTER
TEL. 033-248-3791~3792
Email, humanrights@hallym.ac.kr
위치: 한림대학교 캠퍼스라이프센터 CLC 324호
인권센터 바로가기
한림대학교
HALLYM UNIVERSITY
"함께 만드는 존중의 캠퍼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5	재학생	개인	이종현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ChatGPT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 및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딥페이크와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와 포스터 구성 방향을 발전시켰다. Higgsfield를 활용하여 포스터의 주요 시각 이미지를 생성·편집하였다. 이후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 문구 선정, 메시지 및 디자인 방향은 참가자가 직접 기획하고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3. 작품 제목: 내 얼굴을 빌렸다고 내 인생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 딥페이크로 인해 개인의 얼굴과 정체성이 동의 없이 복제·조작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주목함. 피해자의 시선에서 온라인상 무단 합성·소비의 현실을 표현하고자 제작함.	- 딥페이크로 타인의 얼굴을 무단 복제·조작하는 행위가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알림.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보호되어야 함을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오늘도 좋은 하루
좋아요 1.2만
어거 너야?
오후 10:24
뭔데?
오후 10:25
00:32
00:28
진짜 본인얻데...
1,2만
와... 대박이다
8,324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5,621
믿기지가 않네
3,842
내 얼굴을 빌렸다고,
내 인생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격권
나의 얼굴은
나의 권리입니다.
자기결정권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합니다.
명예권
가짜 영상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권
사적인 정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AI가 만든 가짜 영상, 그 피해는 현실입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hhrc@hallym.ac.kr
033-248-379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6	재학생	개인	추수민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이미지 생성(남·녀 사진, 배경 파도, 사이렌)

3. 작품 제목: 당신의 웃음거리는 안전한가요?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SNS에 올라온 타인의 일상을 무단 캡처해 몰래 품평하고 조롱하는 실태를 표현함. 가해자에게는 가벼운 웃음거리인 조롱이 피해자에게는 삶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큰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제작함.	-단톡방 뒤에 숨어 타인의 일상을 조롱하고 소비하는 행위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폭력임을 알림.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존엄을 집어삼키는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당신의 웃음거리는
안전한가요?
인스타 스토리 올라온 거 봤?
진짜 오지게 웃생겼다 ㅋㅋ
와 남자 업글비 최소 40만...
이걸 올렸네 ㄷㄷ 나라면
쪽팔려서 못 올림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면 너머의 품평 한 줄이
타인의 인권을 짓어삼키는 재난이 됩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hhrc@hallym.ac.kr
033-248-3791-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1	교직원	개인	이성현	주제2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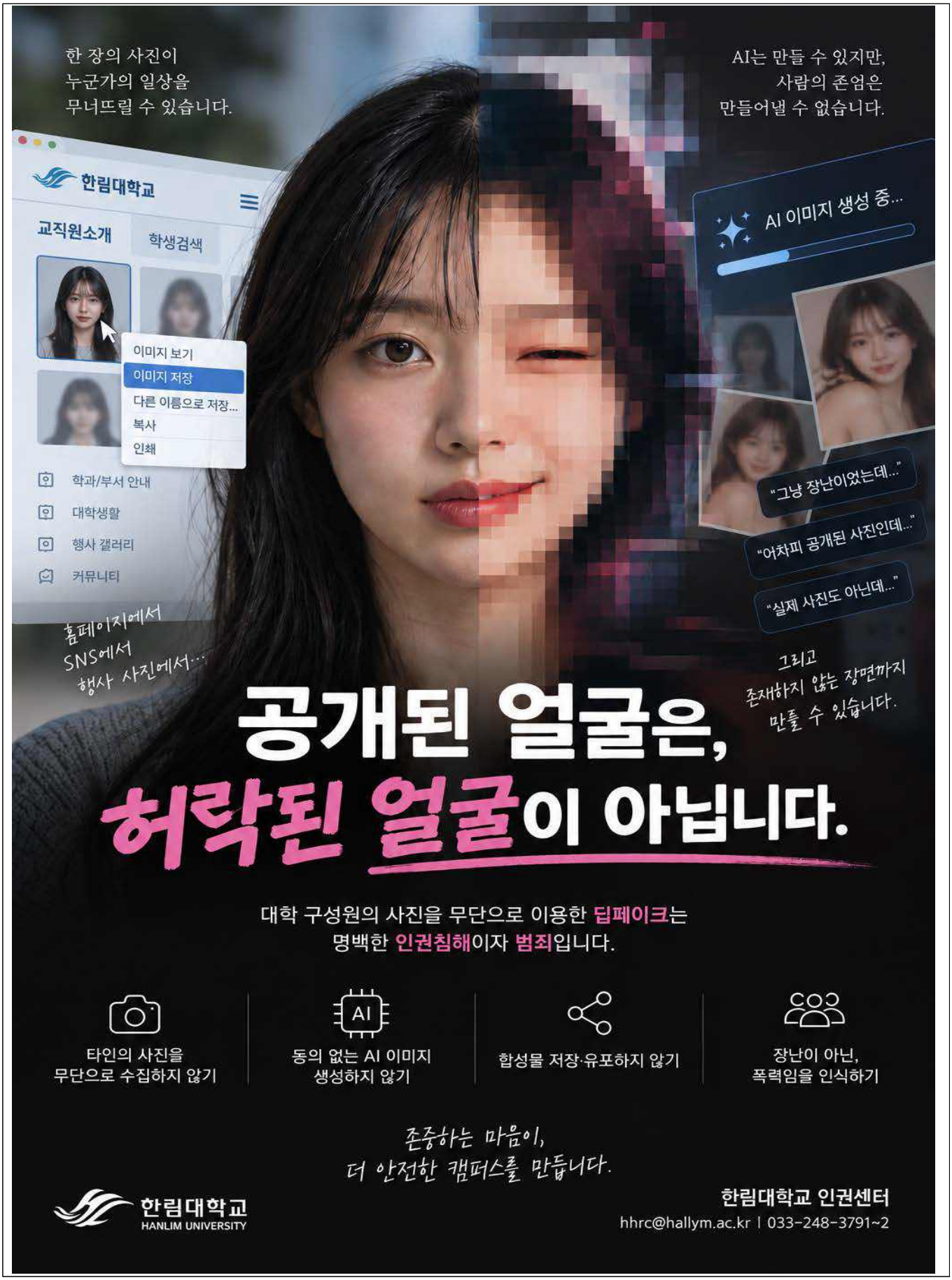
2. AI 활용 범위: 작품 주제 및 구성 아이디어 구상, 포스터 문구 작성·다듬기, 포스터에 사용된 이미지 및 시각적 요소 생성에 활용함.

3. 작품 제목: 공개된 얼굴은 허락된 얼굴이 아닙니다.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공개된 사진을 동의 없이 수집·가공해 딥페이크 등 AI 합성물을 제작하는 문제에 주목함. 대학 역시 구성원의 사진이 다양하게 공개되는 공간인 만큼, AI 합성물이 개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제작함.	-공개된 사진이라도 자유롭게 저장·가공하거나 AI 합성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전달함. AI 기술 활용 시 타인의 동의와 인권을 우선 고려하고, 딥페이크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한 장의 사진이
누군가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AI는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존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림대학교
교직원소개
학생검색
이미지 보기
이미지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복사
인쇄
학과/부서 안내
대학생활
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홈페이지에서
SNS에서
행사 사진에서...
AI 이미지 생성 중...
"그냥 장난이었는데..."
"어차피 공개된 사진인데..."
"실제 사진도 아닌데..."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장면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개된 얼굴은,
허락된 얼굴이 아닙니다.
대학 구성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딥페이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기
AI
동의 없는 AI 이미지
생성하지 않기
합성물 저장·유포하지 않기
장난이 아닌,
폭력임을 인식하기
존중하는 마음이,
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듭니다.
한림대학교
HANLIM UNIVERSITY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hhrc@hallym.ac.kr | 033-248-3791~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4	재학생	개인	박예솔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포스터 캐릭터 이미지 생성 및 문구 다듬기

3. 작품 제목: 당신이 넘는 문, 누군가의 인권입니다.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캠퍼스에서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함. 강의실 문을 타인의 인권을 넘지 말아야 할 경계로 표현하여 서로의 인권과 경계를 존중해야 함을 전달하고자 함.	-아무렇지 않게 한 말과 행동도 상대방에게는 상처나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함.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경계를 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당신이 넘는 문
누군가의 인권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무심코 한 말과 행동,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hhrc@hallym.ac.kr 033-248-3791~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6	재학생	개인	김윤지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생성형 AI와 인권 침해 경고라는 기획 의도에 맞추어 메인 콘셉트 이미지(스마트폰 프레임, 균열된 얼굴, 눈물 효과 등) 구상 및 초안 생성 보조에 AI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포스터 전체 레이아웃 구성, 타이포그래피(헤드카피·서브카피) 제작 및 배치, 색감 조정, 인권센터 필수 정보(전화번호·이메일) 합성 등의 최종 완성 작업은 작성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3. 작품 제목: 클릭 너머의 인권: 가짜가 베어낸 진짜 삶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문제에 주목함. 디지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AI 활용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실제적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자 제작함.	-클릭 한 번으로 만든 가짜가 누군가의 실제 인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함. 생성형 AI가 타인을 해치는 도구가 아닌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술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낸 가짜,
누군가의 진짜 인권을 무너뜨립니다.
생성형 AI,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아닌 존중하는 기술로 활용하세요.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 033-248-3791~2 | hhrc@hallym.ac.kr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7	재학생	개인	서예나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이미지 생성

3. 작품 제목: 성희롱·성폭력 앞에서 위계는 없습니다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대학교 내 교수와 학생, 선배와 후배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게 거부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표현하고자 함	-교수나 선배라는 지위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권리가될 순 없음 '-성희롱·성폭력앞에서는누구에게도위계가존재하지않으며,서로를존중하여야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성희롱·성폭력 앞에서
의거는 없습니다
교수라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경계를
넘을 권리는 없습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hhrc@hallym.ac.kr
033-248-3791~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3	재학생	개인	홍예원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딥페이크’라는 주제를 선정한 후, 관련된 단어들을 생각하여서 단어 간의 언어유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 및 더 퀄리티 높은 단어의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과 ‘합성’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으며, 이에 영감을 받아 문구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3. 작품 제목: 선을 넘는 합성, 합의 없는 빨간 선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한테는 안 일어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며 예방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제작함.	-“동의 없는 딥페이크 합성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경계”임을 알리고, 익명 뒤에 숨어 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경고하며 함께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DE EP
FA KE
선을 넘는 합성
합의 없는 빨간선
hhrc@hallym.ac.kr
033-248-3791/379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7	교직원	개인	이나영	주제2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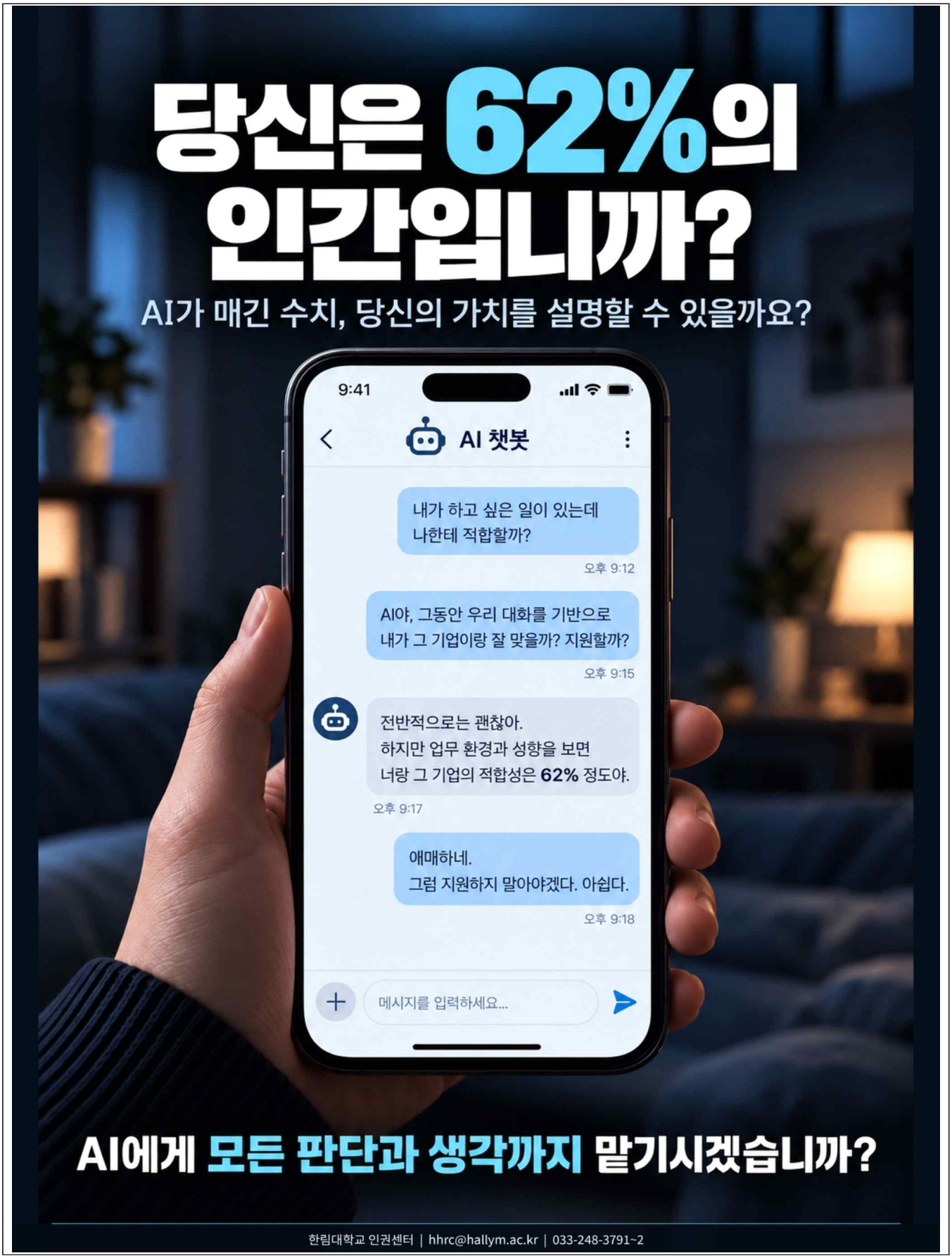
2. AI 활용 범위: 이미지 생성 및 시각적 구성 보조에 활용함. 전체 구성 및 수정 방향은 응모자가 직접 기획함

3. 작품 제목: 당신은 62%의 인간입니까?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생성형 AI의 편리함을 넘어 자신의 선택과 가치 판단까지 AI에 의존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AI가 제시한 '62%'라는 수치만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제작함.	-AI가 제공하는 수치와 판단은 참고자료일 뿐 한 사람의 가치와 가능성을 규정할 수 없으며, AI에 모든 결정을 맡기기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당신은 62%의
인간입니까?
AI가 매긴 수치, 당신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9:41
AI 챗봇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한테 적합할까?
오후 9:12
AI야, 그동안 우리 대화를 기반으로
내가 그 기업이랑 잘 맞을까? 지원할까?
오후 9:15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업무 환경과 성향을 보면
너랑 그 기업의 적합성은 62% 정도야.
오후 9:17
애매하네.
그럼 지원하지 말아야겠다. 아쉽다.
오후 9:18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AI에게 모든 판단과 생각까지 맡기시겠습니까?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 hhrc@hallym.ac.kr | 033-248-3791~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31	재학생	개인	고다휘	주제2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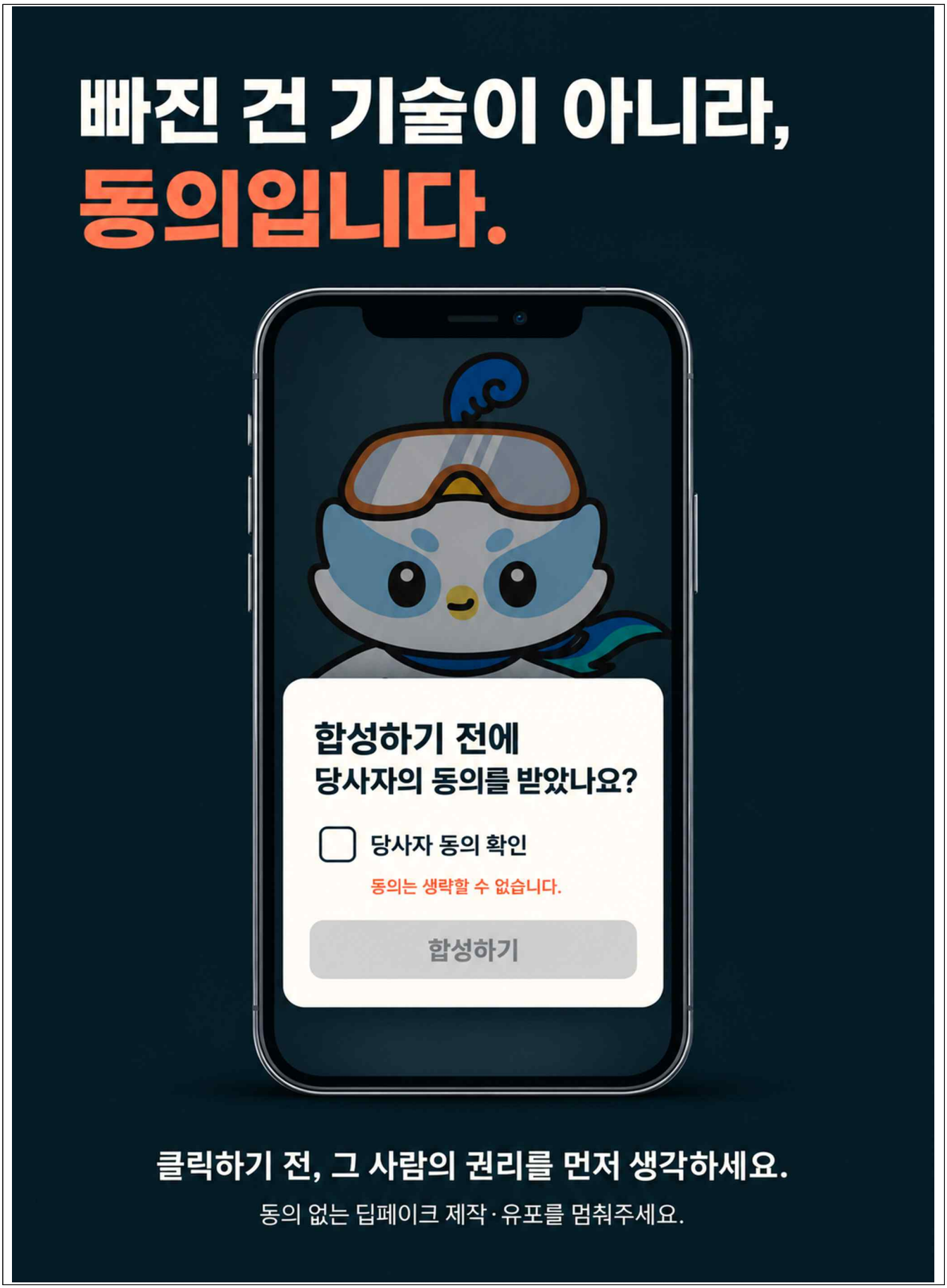
2. AI 활용 범위: 기초 바탕 및 색체 작업

3. 작품 제목: 동의 없는 딥페이크 제작 멈춰 주세요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를 통한 얼굴 합성이 쉬워진 환경에서 기술의 편리함보다 당사자의 동의와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함. 동의 없는 이미지 합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빠진 건 기술이 아니라 동의입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행해서는 안 됨을 전달하고자 함. 동의 없는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를 멈추고, 타인의 의사와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디지털 문화를 제안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빠진 건 기술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합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나요?
당사자 동의 확인
동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합성하기
클릭하기 전, 그 사람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세요.
동의 없는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멈춰주세요.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32	재학생	팀	이민혁 외2	주제2	미사용

2. AI 활용 범위: 해당없음

3. 작품 제목: 진짜 나를 가짜로 만들지 마세요.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 발전과 함께 떠오르는 인권문제로 딥페이크에 주목하고, 내가 한 적 없는 행동을 하는 '나'를 인터넷에서 발견한다면 느낄 감정을 떠올려보며 제작함.	-AI로 인해 온라인에서 진짜가 아닌 '가짜인 나'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을 표현하고, 표정 없는 하얀 가면을 통해 누구나 딥페이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익명성과 보편적 위협을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진짜 나를,
가짜로 만들지 마세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콘텐츠는 누군가에게 실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 건수: 1,384건
(2023년 423건 대비 227.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34	재학생	개인	주현호	주제2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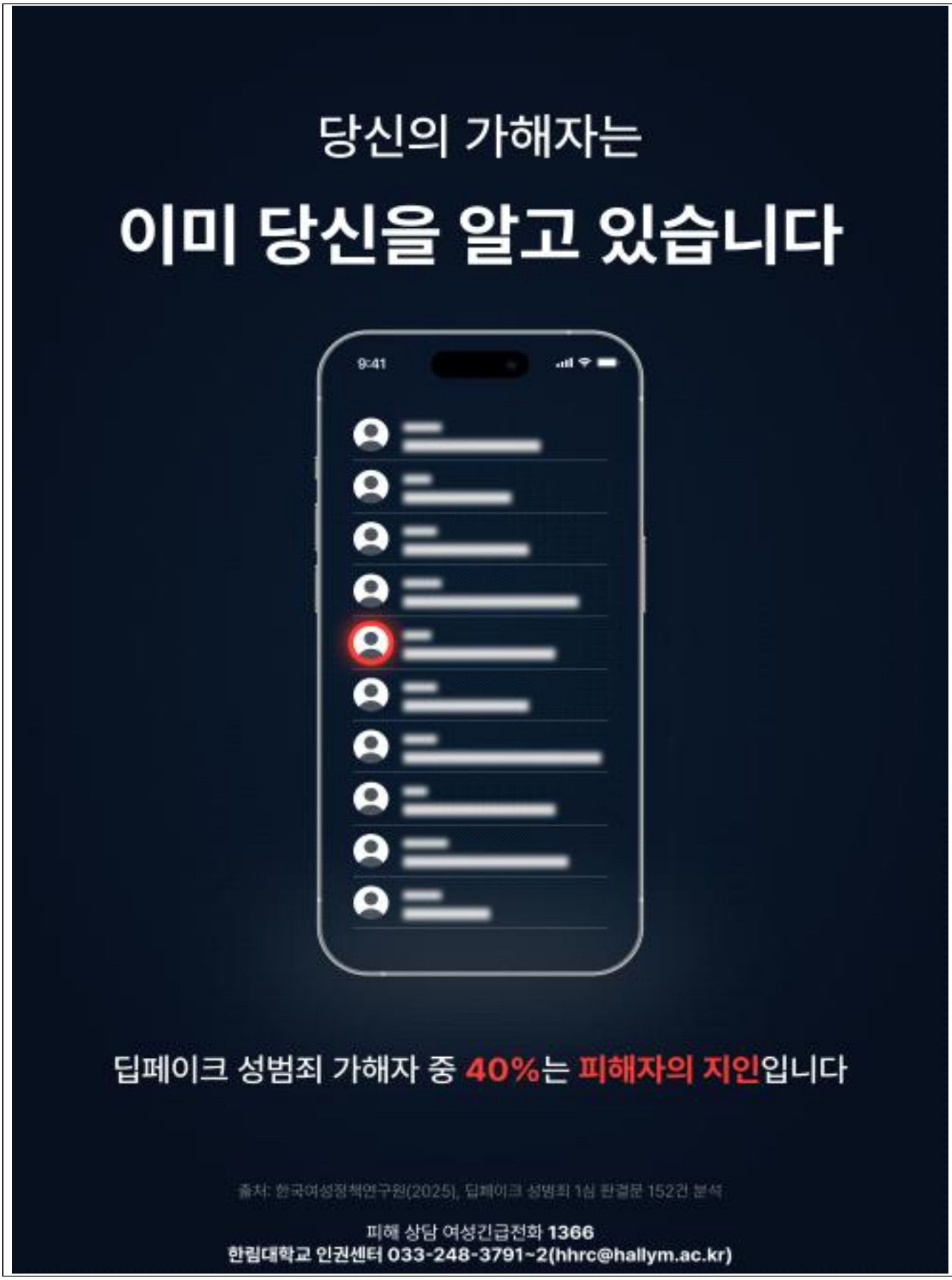
2. AI 활용 범위: 자료 조사 보조, 작품 설명 문구 초안 작성, 구상 단계의 레이아웃 참고. 작품의 주제가 AI로 인한 인권 침해인 만큼, 최종 작품의 이미지와 그래픽은 의도적으로 AI 생성 없이 Figma에서 직접 제작함.

3. 작품 제목: 딥페이크 가해자는 이미 당신의 친구 목록에 있습니다.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된 현실과, 피해자가 학생·교사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함. 메신저 친구 목록 속 한 사람의 프로필에만 붉은 테두리를 둘러 “목록 속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보편적 위협을 보여주고자 제작함.	-동의 없는 얼굴 합성은 자기 얼굴과 몸에 대한 결정권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리고, 합성물을 보거나 소비하는 것 또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함.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다면 열지 않고 신고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당신의 가해자는
이미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9:41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40%는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5), 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문 152건 분석
피해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033-248-3791~2(hhrc@hallym.ac.kr)

③ 카드뉴스 부문

(출품작 수: 6개)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7	교직원	개인	최혁락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아이디어 구상 및 시나리오 설계 보조, 비주얼 레이아웃 시안 생성 및 수정

3. 작품 제목: 기꺼이 긁히며 완성하는 공존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 AI와 인권 중 대학생에게 가까운 주제인 공정성과 노동권을 고민하던 중, 카드뉴스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제를 한정함. AI 대전환 속에서도 대학생의 학습권·자치 및 참여권 등 학생의 권리가 지속되고, 학생을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제작함.	- AI와 달리 인간은 상처를 입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존재임을 표현함. 서로의 상처와 갈등을 통해 더 나은 공존과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얼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업에
갈 수 있을까요?


선택
안내문에는
'선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지?)
사람은 옵션이 아닙니다


다른 문이 있어도, 같은 이용은 아닙니다
(형식적 대안과 실질적 권리 행사의 격차)
Face AI
대체 수단
빠른 이용
별도 도움 없이 가능
일상의 연속적인 경험
≠
같은 이용이 아닙니다
추가 절차 필요
직원의 도움이 전제
이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소요


왜 거부했냐고 묻기 전에,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세요
개인의 소중한 정보는 '이유를 아는 만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01 데이터 수집 목적
02 보유 기간
03 정보 주체의 권리
투명한 안내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출입이 막혔는데,
대학은 업체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업체에 물어보세요.
대학에 문의하세요.
업체
대학
도입 결정 주체
업체
해결 책임자
(도입 결정 주체와 해결 책임자를 분명히 명시하라)


검토가 끝날 때까지,
수업도 기다려야 하나요?
(당장의 임시 출입수단 제공과 불이익 조율이 우선입니다)
신청 접수
사실 검토
관계자 협의
임시 출입수단 제공
불이익 조율
지금, 권리를 지킵니다
학습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안내문을 고쳤다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불이익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가?
학생이 불이익 없이 신청할 수 있는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가?
안내가 아니라, 학생의 현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림대학교
기술을 거부해도
문이 열리는 공정한 내일
모든 선택이 존중받는, 더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한림대학교 인권센터가 함께합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 E-mail: hhrc@hallym.ac.kr | TEL: 033-248-3791~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5	재학생	개인	박재빈	주제1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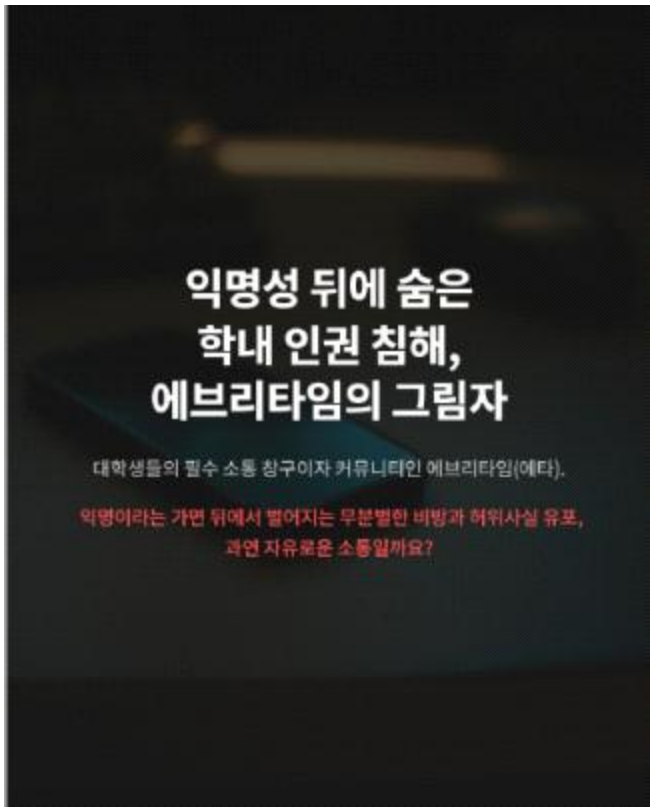
2. AI 활용 범위: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배경을 만들고 피그마에서 디테일 수정을ai와 함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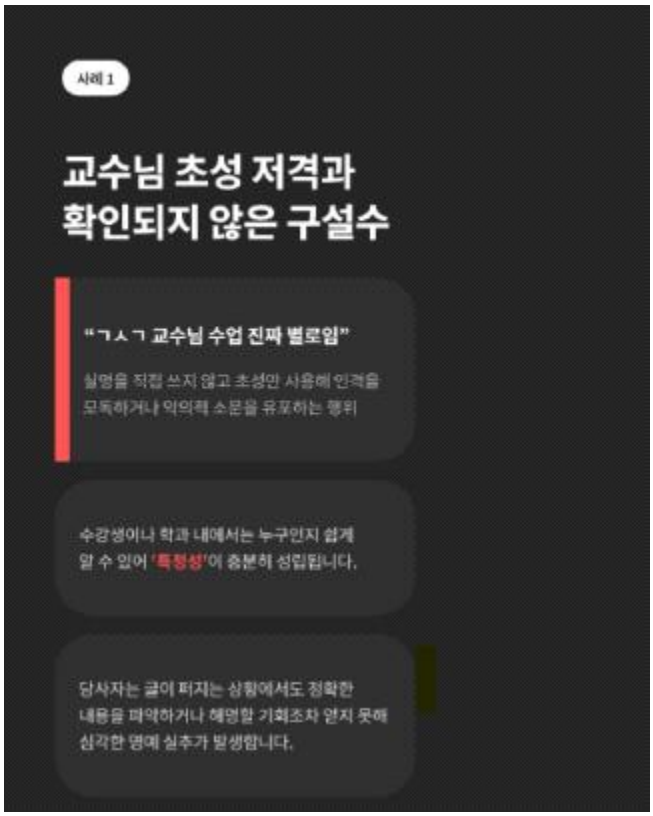
3. 작품 제목: 익명성 뒤에 숨은 학내 인권 침해, 에브리타임의 그림자

4. 작품 설명(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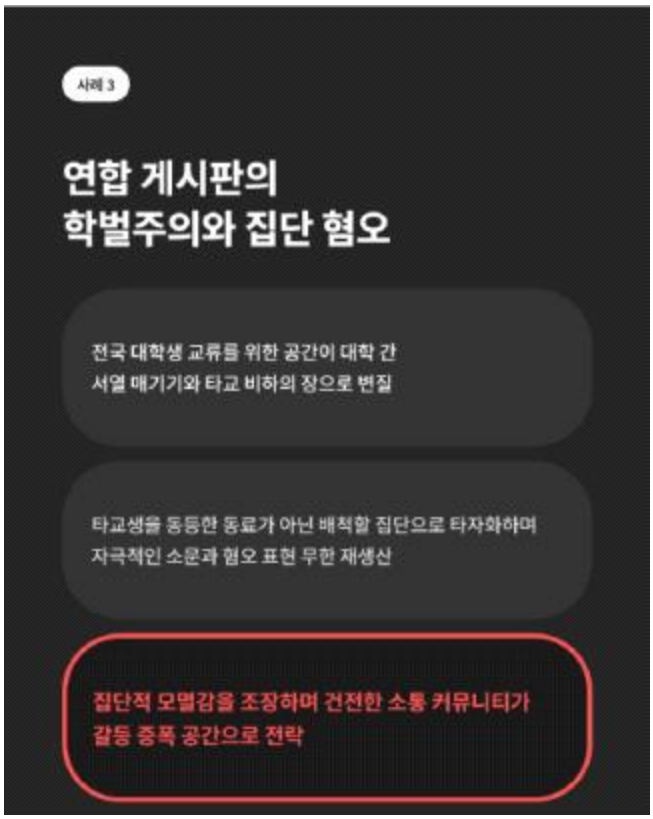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에브리타임의 익명성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학벌 혐오 등으로 변질되는 문제에 주목함. 익명이라도 특정성이 있다면 피해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화면 너머에 실제 사람이 있음을 인식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하고자 제작함.	-익명이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명을 가려도 특정할 수 있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달함.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무비판적으로 퍼나르기보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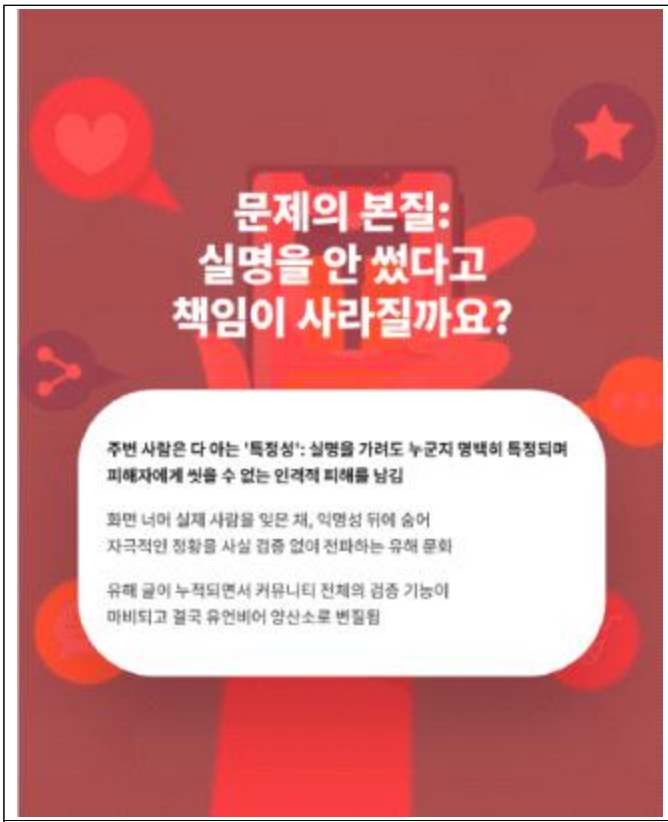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익명성 뒤에 숨은
학내 인권 침해,
에브리타임의 그림자
대학생들의 필수 소통 창구이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과연 자유로운 소통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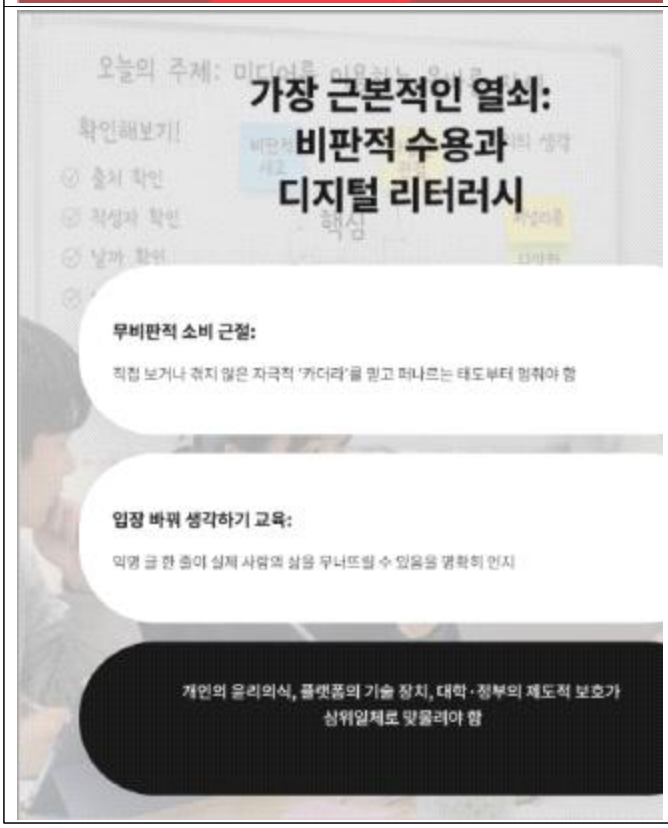

사례 1
교수님 초성 저격과
확인되지 않은 구설수
"ㄱㅅㄱ 교수님 수업 진짜 별로임"
실명을 적접 쓰지 않고 초성만 사용해 인격을 모독하거나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수강생이나 학과 내에서는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어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됩니다.
당사자는 글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심각한 명예 실추가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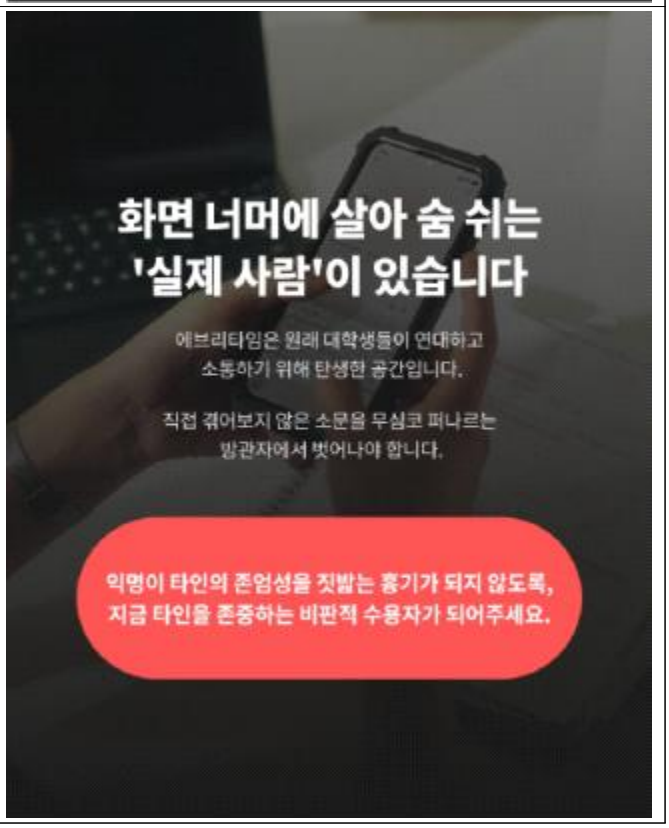

사례 2
학생회장·과대표 선거철
'카더라' 폭로
학과, 학번, 활동 이력 등 상세 단서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교묘한 익명 폭로
투표까지 시간이 촉박한 선거 기간 특성상
피해후보는 즉각적인 사실 규명과 해명이 불가능
검증되지 않은 폭로로 회복 불가능한 낙인이 찍히고
선거 결과까지 왜곡되어 학내 민주주의를 훼손함


사례 3
연합 게시판의
학벌주의와 집단 혐오
전국 대학생 교류를 위한 공간이 대학 간
서열 매기기와 타교 비하의 장으로 변질
타교생을 동등한 동료가 아닌 배척할 집단으로 타자화하며
자극적인 소문과 혐오 표현 무한 재생산
집단적 모멸감을 조장하며 건전한 소통 커뮤니티가
갈등 증폭 공간으로 전락


문제의 본질:
실명을 안 썼다고
책임이 사라질까요?
주변 사람은 다 아는 '특정성': 실명을 가려도 누군지 명백히 특정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남김
화면 너머 실제 사람을 잊은 채, 익명성 뒤에 숨어 자극적인 정황을 사실 검증 없이 전파하는 유해 문화
유해 글이 누적되면서 커뮤니티 전체의 검증 기능이 마비되고 결국 유언비어 양산소로 변질됨


해결을 위한 다층적 접근:
플랫폼과 제도의 역할
플랫폼 기술 조치
초성 저격 및 특정인 암시 글 작성 시 명예훼손·모욕 가능성 팝업 경고 및 일시적 작성 제한 시스템 도입
확산 차단 메커니즘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폭로가 낙인 효과로 굳어지기 전에 피지는 확산 구조 자체를 억제
제도적 보호망
정부 차원의 실질적 가이드라인 및 평가 기준 마련,
대학 내 디지털 인권 전담 상담센터 활성화


가장 근본적인 열쇠:
비판적 수용과
디지털 리터러시
무비판적 소비 근절:
직접 보거나 겪지 않은 자극적 '카더라'를 믿고 퍼나르는 태도부터 멈춰야 함
입장 바꿔 생각하기 교육:
익명 글 한 줄이 실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
개인의 윤리의식, 플랫폼의 기술 장치, 대학·정부의 제도적 보호가
삼위일체로 맞물려야 함


화면 너머에 살아 숨 쉬는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원래 대학생들이 연대하고
소통하기 위해 탄생한 공간입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소문을 무심코 퍼나르는
방관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익명이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타인을 존중하는 비판적 수용자가 되어주세요.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8	재학생	팀	이준혁 외2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3페이지 사이버 폭력 통계자료, 4페이지 이미지 생성 및 사례, 일부 문구 다듬기(6-7페이지)

3. 작품 제목: '1'이 사라지는 순간 시작되는 사이버 불링

4. 작품 설명(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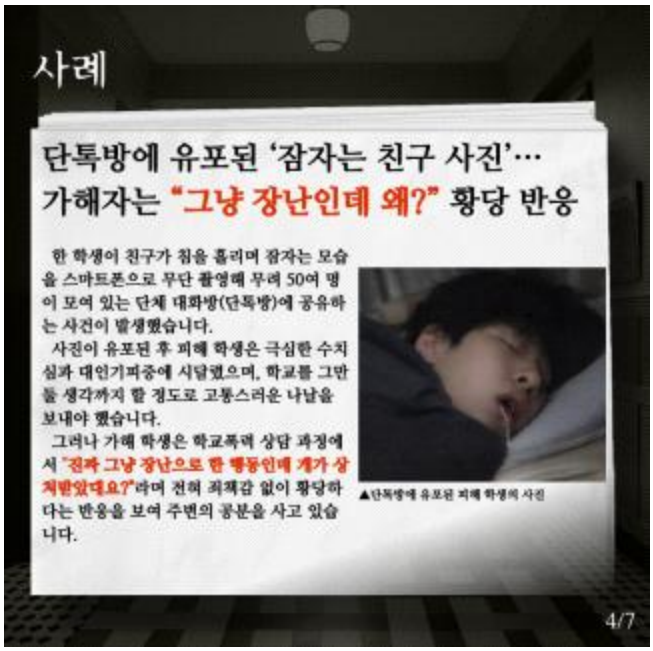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스마트폰과 SNS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불링 문제에 주목함. 메시지를 읽는 짧은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해와 폭력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시각화하고자 제작함.	-가벼운 장난이나 의도였더라도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다면 사이버 폭력이자 범죄가 될 수 있음.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언행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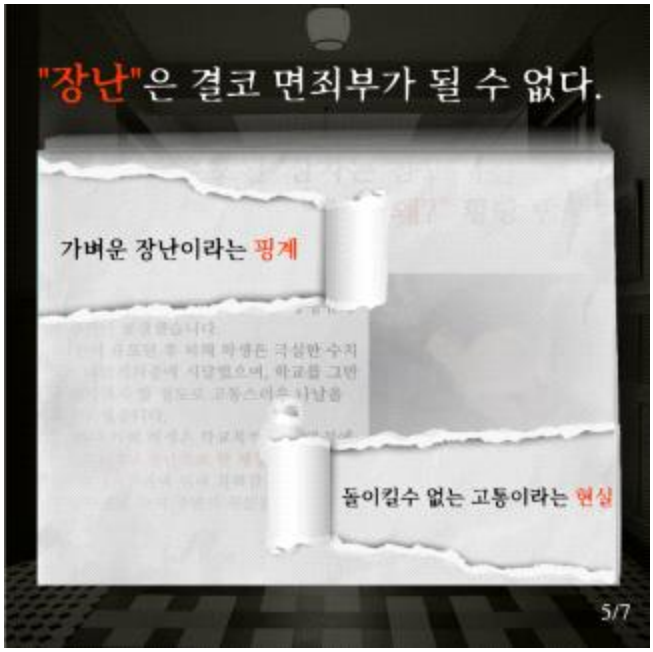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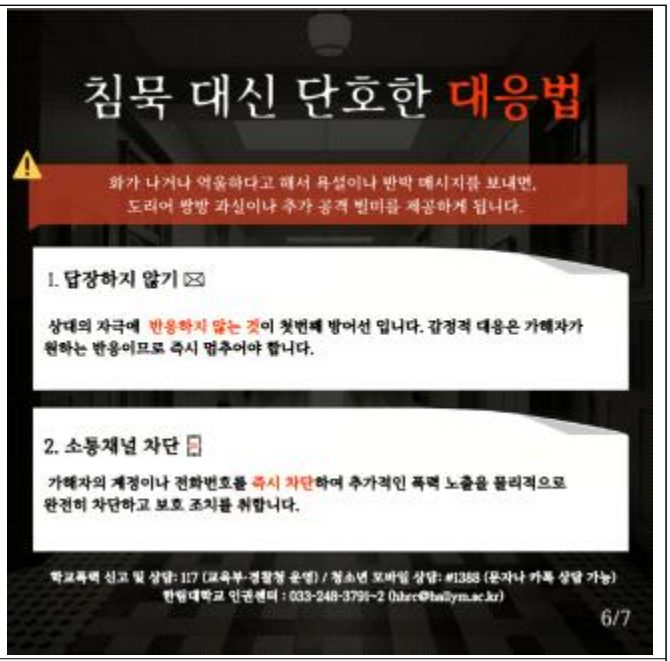

'1'이 사라지는 순간
시작되는 사이버 불링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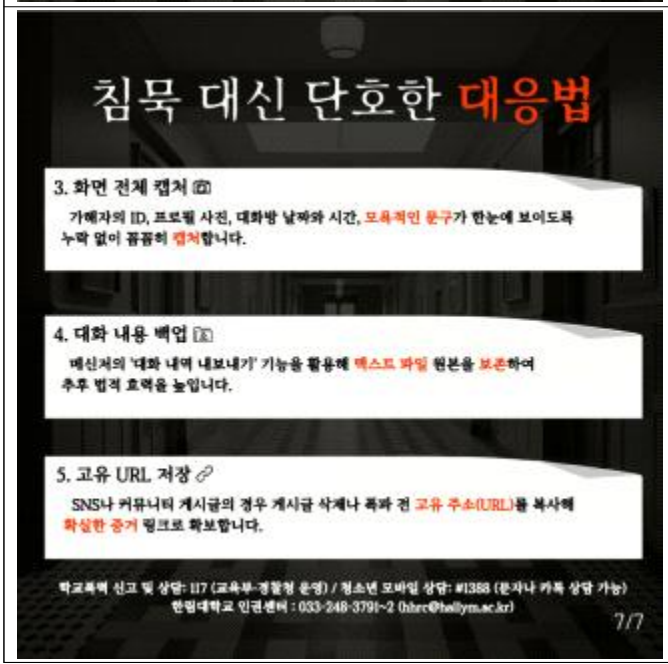

가상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불링
Cyber
(SNS, 인터넷)
Bullying
(집단 따돌림)
디지털 기기 뒤에 숨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2/7


보이지 않는 폭력, 이미 우리 일상속에
청소년 경험률
42.7%
성인 경험률
13.5%
1년 만에 +5.5%
3/7


사례
단톡방에 유포된 '잠자는 친구 사진'…
가해자는 "그냥 장난인데 왜?" 황당 반응
한 학생이 친구가 침을 흘리며 잠자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무단 촬영해 무려 5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이 유포된 후 피해 학생은 극심한 수치심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으며,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상담 과정에서 "진짜 그냥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계가 상처받았대요?"라며 전혀 죄책감 없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여 주변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유포된 피해 학생의 사진
4/7


"장난"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가벼운 장난이라는 핑계
돌이킬수 없는 고통이라는 현실
5/7


침묵 대신 단호한 대응법
화가 나거나 억울하다고 해서 욕설이나 반박 메시지를 보내면,
도리어 쌍방 과실이나 추가 공격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1. 답장하지 않기
상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첫번째 방어선 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가해자가 원하는 반응이므로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2. 소통채널 차단
가해자의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여 추가적인 폭력 노출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고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117 (교육부-경찰청 운영) / 청소년 모바일 상담: #1388 (문자나 카톡 상담 가능)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 033-248-3791~2 (hlrc@hallym.ac.kr)
6/7


침묵 대신 단호한 대응법
3. 화면 전체 캡처
가해자의 ID, 프로필 사진, 대화방 날짜와 시간, 모욕적인 문구가 한눈에 보이도록 누락 없이 꼼꼼히 캡처합니다.
4. 대화 내용 백업
메신저의 '대화 내역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텍스트 파일 원본을 보존하여 추후 법적 효력을 높입니다.
5. 고유 URL 저장
SNS나 커뮤니티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 삭제나 폭파 전 고유 주소(URL)를 복사해 확실한 증거 링크로 확보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117 (교육부-경찰청 운영) / 청소년 모바일 상담: #1388 (문자나 카톡 상담 가능)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 033-248-3791~2 (hlrc@hallym.ac.kr)
7/7

빈칸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0	교직원	개인	노민솔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실제로 촬영한 한림대학교 내 장소 사진을 픽셀 느낌으로 제작하여 게임 컨셉의 이미지를 생성함.

3. 작품 제목: 한림대학교 인권 지킴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대학생활 중 경험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사소한 부주의가 타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제작함.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입장바꿔 생각하며 다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한림대학교
한림대
인권지킴이
인권 수호 프로젝트
PRESS START TO PLAY
LET'S GO!


사건 1 탐색하기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
교내 곳곳을 살펴보는중 · · ·
INTERNATIONAL HALL
사건 발생!


NEW!
사건 1 : 외국인 재학생의 정보 소외
▶ 1. 공지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 2. 모른 척 지나간다.
글로벌융합대학
나는 공지를 전달받지 못했어.


STAGE
CLEAR
글로벌융합대학


사건 2 탐색하기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캠퍼스 복도를 순찰하는중 · · ·
사건 발견?


NEW!
사건 2 : 선후배간의 불쾌한 장난
▷ 1. 웃으며 이 상황에 동조한다.
▶ 2. 함께 웃지 않고, 후배의 기분을 살핀다.
이.. 불편해. 왜 자꾸 놀리는거야..


STAGE
CLEAR


MISSION
COMPLETE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인권존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듭니다.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이메일 : hhrc@hallym.ac.kr
전화번호 : 033-248-3791~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9	재학생	팀	양수민 외1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이미지(명령어: 가로등 사진을 준 뒤 길가고 있는 사람을 그려줘 전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림자는 ai였으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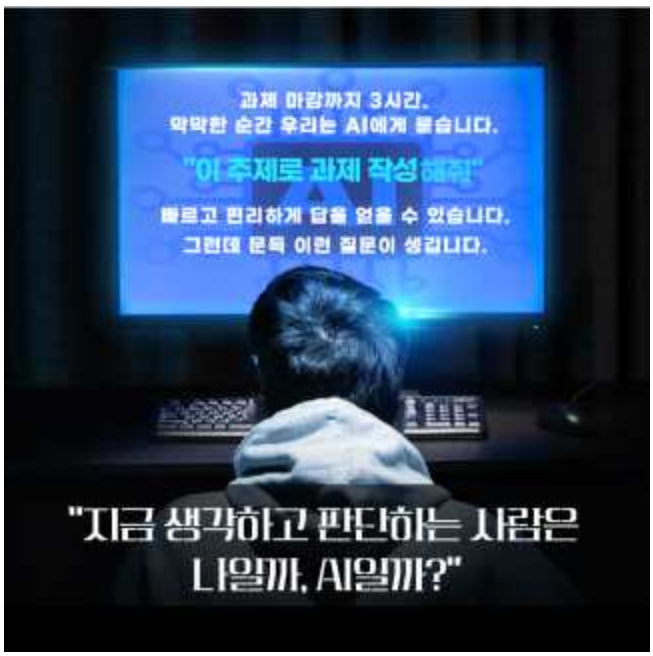
3. 작품 제목: AI에게 답을 맡겨도, 선택까지 맡겨도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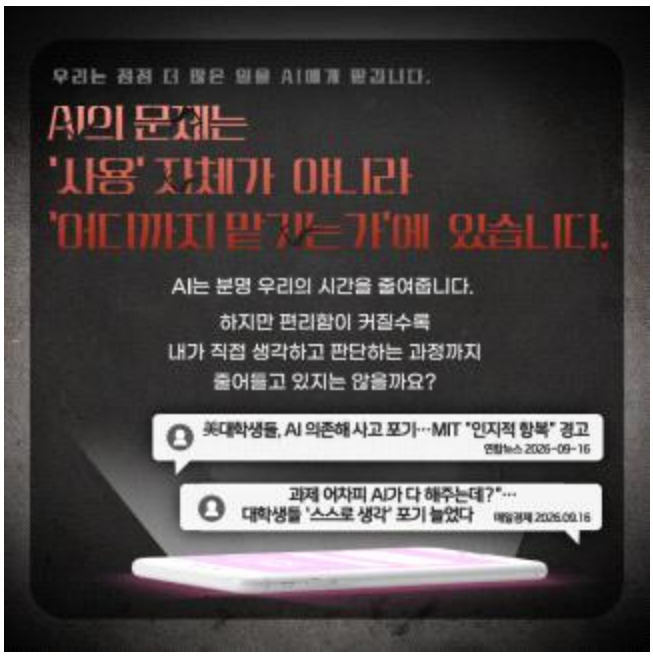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과제라는 일상적인 상황을 통해 표현함.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AI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되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작함.	-“AI에게 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나의 판단과 선택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AI의 편리함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적인 결정권을 지켜야 함을 전달하고자 함. AI 시대에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인권의 가치임을 강조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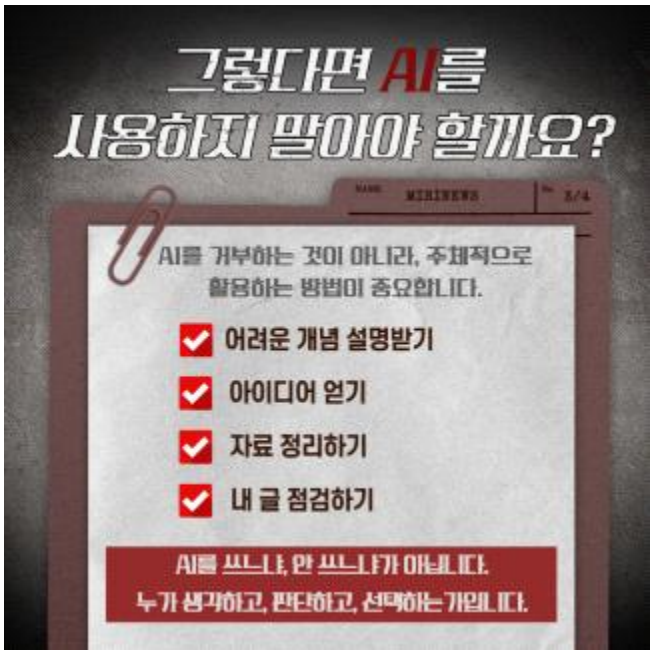

AI에게 답을 맡겨도,
선택까지 맡겨도 될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나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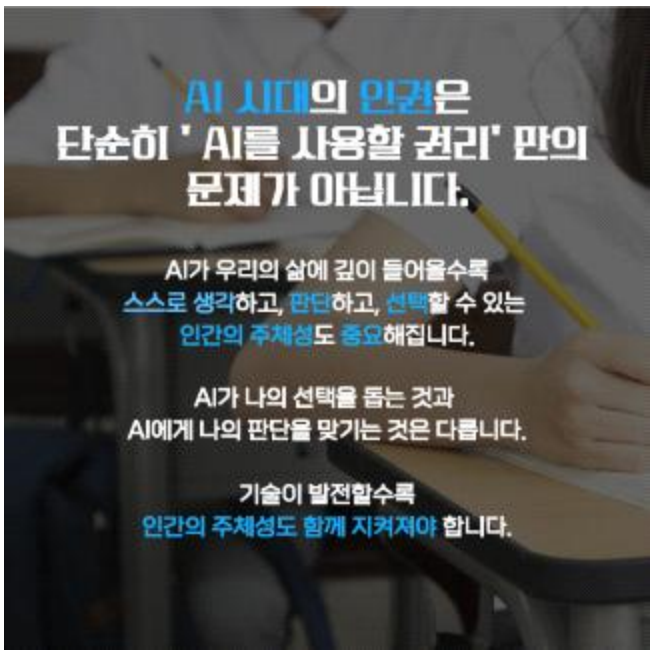

과제 마감까지 3시간.
막막한 순간 우리는 AI에게 물습니다.
"이 주제로 과제 작성해줘"
빠르고 편리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나일까, AI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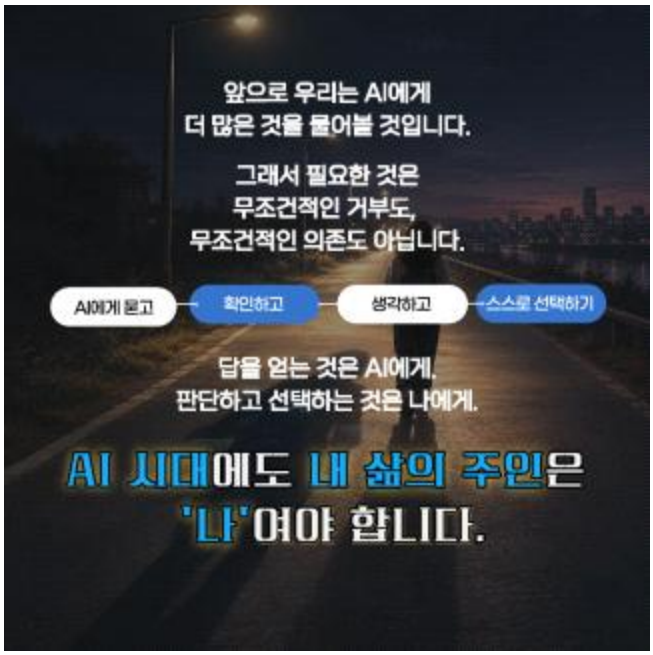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일을 AI에게 맡깁니다.
AI의 문제는
'사용'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 맡기는가'에 있습니다.
AI는 분명 우리의 시간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커질수록
내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까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美대학생들, AI 의존해 사고 포기…MIT "인지적 항복" 경고
연합뉴스 2026-09-16
과제 어차피 AI가 다 해주는데?"…
대학생들 '스스로 생각' 포기 늘었다
매일경제 2026.09.16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AI를 사용하는 것 ≠ AI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
확인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AI는 나의 판단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답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판단까지 AI에게 맡기게 될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면서도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


AI가 만든 답이
항상 정확하거나 나의 답은
아닙니다.
AI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무엇을 받아들일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AI가 답을 제시해도,
그 답을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해야합니다
UNESCO의 AI 윤리 원칙에서도
인간의 감독과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인간 감독'의 원칙
AI 시스템이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인간의 책임과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AI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AI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개념 설명받기
아이디어 얻기
자료 정리하기
내 글 점검하기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가입니다.


AI 시대의 인권은
단순히 ' AI를 사용할 권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올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주체성도 중요해집니다.
AI가 나의 선택을 돕는 것과
AI에게 나의 판단을 맞기는 것은 다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주체성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AI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거부도,
무조건적인 의존도 아닙니다.
AI에게 묻고
확인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기
답을 얻는 것은 AI에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AI 시대에도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36	재학생	개인	김현진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아이디어 구체화, 전달 메시지 소제목 다듬기

3. 작품 제목: AI 시대 인간의 권리는 안전한가?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성폭력과 양성평등 문제는 꾸준히 다뤄져 왔지만, AI가 빠르게 발전하며 인간의 권리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함.	-AI 활용에 경각심을 갖고, 점점 발전하는 현시대에 AI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인류가 되기를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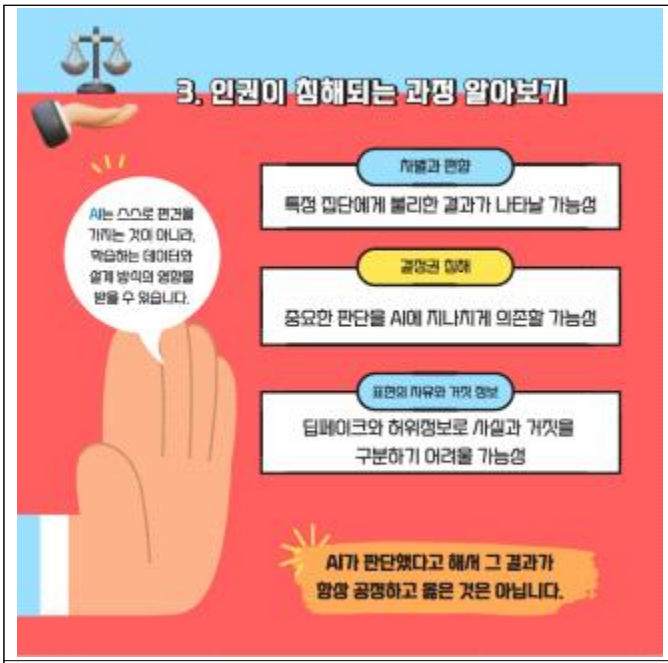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인권센터와 함께 보는 AI와 인권
AI 시대,
인간의 권리는
안전한가?


1. AI, 우리 생활 어디까지 들어왔을까?
AI는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
번역
챗봇
의료
교육
인공지능이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는 현재 지켜지고 있을까요?


2. AI가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인간의 권리
AI의 발전과 위협받는 인간의 권리
개인정보
YES
NO
결정권
FAKE
표현의 자유와 정보
노동권
자범과 판항
AI의 편리함,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켜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 알아보기
나의 정보는 안전할까?
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2. 동의없는 데이터 활용
3. 민감한 정보 노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
</td>
<td>빈칸</td>
</tr>
</table>

④ 에세이 부문

(출품작 수: 14개)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	재학생	개인	송윤진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작품의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 핵심 주장 및 최종 글 작성은 직접 진행했으며, AI는 작성 과정에서 맞춤법 교정과 참고자료의 출처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용도로만 활용하였다.

3. 작품 제목: AI는 모두에게 공정한가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 AI도 인간의 편견과 차별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채용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AI의 판단이 모두에게 공정한지 탐구하고, 공정함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자 제작함.	- AI의 동일한 기준이 반드시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전달함. AI의 판단을 무조건 객관적으로 믿기보다 편견과 공정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I는 모두에게 공정한가

20262546 송윤진

우리는 인공지능을 객관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감정과 편견이 있지만, AI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오히려 인간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AI는 정말 모두에게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I는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가 가진 편견과 차별 역시 AI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AI가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편견을 학습하고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AI가 사람보다 객관적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업의 AI 채용 활용도 높아지고 있다. 2026년 3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서도 인사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86.7%에 달했다.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주요 이유로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이 꼽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생성형 AI가 구직자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AI는 편견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편견이 있는 사회를 학습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AI가 객관적인 판단자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편견을 학습하고 재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시키고 편향된 데이터를 제거하면 AI는 완전히 공정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 아니면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을 고려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학습 환경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장애나 경제적 환경 등의 이유로 같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다.

AI의 공정성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다뤄진다. 알고리즘이 여러 집단의 오류율을 같게 만드는 것과 각 집단의 예측 결과를 실제 결과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 등 서로 다른 공정성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가 있다. 즉, 수학적으로도 '공정한 AI'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AI에게 공정함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공정함을 원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AI가 사람을 한 가지 특징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 사람은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알고리즘 공정성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성별이나 인종처럼 하나의 집단만 따로 평가하면 공정해 보이는 AI라도 여러 특성이 겹치는 작은 집단에서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교차 집단은 규모가 작아 실제로 공정성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AI가 남성과 여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안에는 장애가 있는 여성, 고령의 여성,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처럼 여러 조건이 겹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에게도 공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AI의 공정성을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AI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과 누구에게나 공정한 결과를 주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AI가 기존의 차별을 그대로 학습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인간의 편견은 한 사람의 판단에서 끝날 수 있지만, AI에 들어간 편견은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되고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AI의 공정성은 단순히 "AI가 차별하지 않도록 만들자"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 역시 AI의 발전을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 인권, 평등과 연결해 바라본다. AI는 인간을 위한 기술이어야 하며,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AI가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AI만 바뀌어서는 부족하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달라져야 하고, AI를 만드는 사람들의 구성도 다양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AI가 내린 판단을 인간이 무조건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AI를 인간보다 객관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AI는 사회 밖에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AI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학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AI 역시 그 흔적을 배울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데이터에 담고, 차별을 발견하고 수정하려 노력한다면 AI 역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AI에게 공정함을 가르치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공정함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이다. 따라서 질문은 "AI는 모두에게 공정할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AI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AI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공정한 세상인지 먼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3	재학생	개인	이서윤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제목 설정에 도움을 받음, 글 초안 작성 보조

3. 작품 제목: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성별을 향한 혐오·차별적 발언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제작함.	- 한국 대학생 간 성 갈등이 완화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제목: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이서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사용해 보았다.다양한 게시판들을 둘러보던 와중 나는 심심치 않게 성 관련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대학생들을 종종 에브리타임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주로 남성과 여성과의 다툼이 많았고,사소한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혐오적인 표현이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다.이러한 혐오와 갈등을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최근에 계속 고민해보았다.

이러한 갈등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첫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현실공간과 다르게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의견 차이도 쉽게 오해로 번지고,오해는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다.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등을 토대로 상대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고 글자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커진다.게다가 짧은 글이나 댓글 하나로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다보니,맥락은 사라지고 단편적인 문장만 남게되어 감정싸움으로 쉽게 번지게 된다.한 번의 오해가 다시 다른 오해를 낳고,그 과정에서 처음의 논점은 사라진 채 비난만 남게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두번째로는 익명성이다.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거친 말도 큰 부담 없이 하게되는 것 같다.만약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상태라면 과연 같은 말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익명성이라는 것이 때로는 개인의 생각을 표현해 주는 도구가 될 때도 있지만,그 이면에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도와주는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위험성도 품고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프레임이다.한 사람의 발언이 마치 그 성별 전체의 생각처럼 받아들여지기 쉬워 개인간의 갈등이 곧 성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특정 성별이 차별받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 댓글창에는 종종 '이래서 한남들은~~~~','이래서 한녀들은~~~~'이라는 혐오발언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개인의 생각이나 발언이 특정 성별의 전체 입장으로 여겨지는 순간,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갈등만 남게된다.네번째로는 대학교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수성이다.대학교는 다양한 지역,배경,가치관 등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모여지내는 곳이다.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익명의 다수와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일이 잦아지고,그만큼 낯선 이들과의 마찰도 늘어난다.여기에 학점,취업,인간관계 등 여러 부담이 겹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로 표출되기도 하는 듯 하다.

실제로 내가 에브리타임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한 학생이 남성만 군대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신체적 문제 등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들을 징집하는 대신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글에 '잘가랑~' 같은 조롱성 댓글이 달리거나 심지어는 작성자의 부모님을 욕하는 댓글에 좋아요가 눌린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다.이러한 조롱,인신공격이 문제의 본질인 공정성 논의를 흐리게 만들었다.그렇다면 이러한 혐오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서로가 서로를 대하는데에 있어서 '성별'이 아닌 '하나의 개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누군가의 발언이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전부의 입장으로 확대해석하지 않고,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 진다고 생각한다.또한 온라인에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기전에 이 말을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고 말한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학교 차원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 표현에 대한 신고 및 제재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 이번 공모전처럼 학생들이 직접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혐오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장 중요한 것은,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변화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를 향한 편견을 내려놓고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려는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별 갈등의 원인과,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았다.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익명성이 주는 무책임함,'남성 대 여성'이라는 프레임,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온라인 공간 속의 혐오와 갈등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물론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상대방을 특정집단의 대표가 아닌 한 사람의 개인으로 바라보려는 작은 시선의 변화,그리고 학교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제도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나는 이 에세이를 통해 한국의 대학생들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보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서로 반대의 입장이 적이 되야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이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8	교직원	개인	김서윤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맥락 및 오탈자 검수, 인용 자료 검색

3. 작품 제목: AI 시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인권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며 느낀 위화감	-커져만 가는 AI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경고, 소실되어가는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 강조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I 시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인권

47075 김서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며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AI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듯하다. AI의 범용성과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유연함에 빅데이터가 접목되며 그 활용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의료·제조업·서비스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야의 산업체는 이 신기술을 수용하고 흡수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AI, 즉 인공지능(人工知能)이란 사람이 가진 학습, 추론, 판단, 문제 해결 등의 지능적인 능력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만든 기술이다. 즉 본디 인간을 본떠 만든 기술이며, 그 탄생의 근간에 인류의 위대한 지식이 기틀을 다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AI의 사용이 만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풍조 속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실태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AI는 끊임없이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인간은 그 편리함에 의존하기만 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해야 할 필요성은 감소하는 구조이다.

변혁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이 발명된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태되는 것은 -적어도 그가 그 기술을 뛰어넘을 개인적인 능력 혹은 재주를 보유하던 것이 아닌 이상- 정설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새로운" 것은 늘 낯선, 또 날 선 감각과 함께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켰다.
[1]그 예로 전기가 처음으로 캄캄한 밤하늘의 어둠을 몰아냈을 때, 대자연을 거스른 죄로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떤 자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 [2]사진기가 처음으로 사람의 형상을 프레임에 담았을 때도 사탄이 들린 물건이라며 배척하는 파가 있었으며, 셔터음과 촬영 플래시가 영혼을 앗아간다는 -현대인들 입장에선 그저 웃고 말- 괴담까지 돌았다.
그러나 모든 과도기를 거쳐 전기와 사진은 현재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전기는 더 이상 조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시 전 인류가 명운을 달리할 만큼의 무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사진기의 발명 당시 많은 화가들은 실제 사물을 그대로 묘사하는 기법에 회의감을 느꼈으나, 무력함에 잠식되기보다는 사진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만의 표현 방식을 모색했고, 이에 인상주의와 추상미술을 비롯한 새로운 화풍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있었다 한들 인간은 대체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는 풍부해졌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오롯이 인간이 만들고 부딪치며 성취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만으로 AI를 전기나 사진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메카니즘은 인간의 그것과는

---

1) [1] 유길준.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
[2] 황현. 『매천야록(梅泉野錄)』, 1910
2) [1] Nadar, Quand j'étais photographe (Paris: Ernest Flammarion, 1900).
[2] Laurie Lawlor, Shadow Catcher: The Life and Work of Edward S. Curtis (New York: Walker & Company, 1994).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의심 없이 AI를 사용하고 신뢰한다.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에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잘못된 지식을 학습할 수도, 또 사용자에게 옳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본래 이런 부분들을 여과하는 것은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었겠으나, AI로 인해 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
우리의 사그라지는 지식욕과 그에 반비례하는 AI의 무서운 가세는 결국 모래시계형 계층구조처럼, 스스로 학습하며 지식 확장을 멈추지 않는 집단 -모래시계의 상층-과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집단 -모래시계의 하층-으로 양극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AI가 양날의 검임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멈추지 않되 냉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둘러싼 구식과 혁신이라는 모호한 경계 어딘가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입장을 택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누군가 인공지능을 창시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었을 때, 누군가는 묵묵히 본질의 중요성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손가락 끝에서 남발되는 질문과 진실 같기만 한 활자들을 경계해야 하며, 출처가 올바른지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율성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AI는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개성이다. 따라서 AI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은 단순히 학습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권리와 주체성을 약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전지전능해 보이는 AI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탐구와 그 과정에서 얻었던 기쁨들, 더불어 이제는 사라져 버린 낭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기에 비로소 가질 수 있었던 인간성의 반영이며, 긴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자부심이자 누려 마땅한 권리이다. 눈앞의 편리함에 안주하다 이를 잃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권을 몰락시켰음에 자조해야 할 것이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9	교직원	개인	염혜정	주제1	미사용

2. AI 활용 범위: 해당없음

3. 작품 제목: 학생 사회의 위축, 사라지는 민주주의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변하는 입시·취업 제도와 사회구조로 위축되는 학생 사회에 주목함. 청년들의 정치·사회적 관심과 자치 공간이 위축되는 현실을 돌아보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고민하고자 에세이를 작성함.	-대학은 학생들이 서로 연결되고 토론하며 부당함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함. 대학은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학생 사회의 위축, 사라지는 민주주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염혜정

나는 취업 관련 부서에서 일하며 올해 신설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신입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 그 학생들은 아직 진로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하지 못하고 대학에 와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정하라는 훌륭한 입시 제도의 취지로 입학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진로를 묻고 조언을 구할 졸업생도, 학교생활의 시행착오를 나눌 선배도 없어 보였다. 뒤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어떤 걸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뜸을 들이다가 “아직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벌써 뒤처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진로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말이었지만, 대학 안에서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불안함으로 들렸다. 그들에게 전공을 선택할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였다. 그렇게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 괜히 무척이나 위축되어 보였고, 과연 대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이 되었다. 이에 나는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기로 하였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나 활기찬 토론의 장이라는 역사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캠퍼스는 외롭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오직 취업과 생존을 향해 달리는 ‘스펙 공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떠들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싸우지 않고, 그저 작은 화면을 바라보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니는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학점, 대외활동, 직무경험, 자격증이라는 생존 스펙 경쟁에 매몰되어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행정과 학칙 개정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학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공간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학생들의 자치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은 어떻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비롯해 전국 다수의 대학에서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저조나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학생회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들이 느끼는 소속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고,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진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로 학생회의 존재감이 점점 작아지면서 주요 역할은 ‘축제 기획’만 남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입학이 확대되고, N수를 택하는 학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특정 대학과 학과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26.04.06. 팍팍한 청춘...대학 총학생회가 사라졌다.]*

소속감의 부재는 곧바로 학생 사회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진다. 출마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 간의 연대와 조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나아가 장기간 이어진 청년 취업난 속에서 학생들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학교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정치나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취업난 속에서 생존 스펙 경쟁에 매몰되어 공동체를 돌볼 여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구조와 급변하는 입시, 취업 제도가 청년들에게 연대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셈이 된 것이다.

이러한 학생 사회의 위축은 반대로 대학의 권력화를 부추긴다. 저항의 주체가 사라진 캠퍼스에서 학교 본부는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민주적 동의 절차 없이 장학금 규정이나 시설 이용 방식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몇몇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하려 할 때, 대학은 환경 미화나 사전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이를 검열하고 수거 명령을 내린다. 예전에 근무하던 한 여자대학교에서 학생회가 남녀공학으로 합쳐지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며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당장 철거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 작은 사회인 대학에서는 그마저도 허용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학생 자치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부당함에 맞서 집단적 목소리를 낼 동력을 잃었기에 이러한 통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곤 한다.

결국 대학 내 인권 침해와 자치권의 붕괴는 단순히 개별 대학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적 구조와 공동체를 해체하는 학사 제도 개편이 맞물려, 청년들의 정치, 사회적 관심을 마비시키고 자치 공간을 해체한 결과인 것이다. 대학이 학생들을 비판적 사고를 지닌 주체로 대하지 않고 기업에 최적화된 부품을 공급하는 취업 준비 공장으로 기능할 때, 캠퍼스 내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나는 취업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지만, 대학이 이런 정 없는 취업 준비 공장이 되길 원하지는 않는다.

대학은 취업률만으로 성과를 증명하려는 기관이 아니다. 물론 취업은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머문다면, 학생들은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취업 부서에서 일하는 나 역시 학생들에게 단순한 스펙을 넘어서 연대와 치유, 진정한 진로의 의미를 찾아주고 싶다. 진정한 대학의 회복은 학생들이 스펙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불안을 말할 수 있고, 부당함 앞에서는 함께 목소리를 내며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해야만 하는 어른들이니까.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0	교직원	개인	신성열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오타 검증, 최종 탈고

3. 작품 제목: AI는 누구의 편인가?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와 인권을 위험과 침해의 관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과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가능성에 주목함. 기술의 한계와 격차를 함께 살펴보며, AI가 사람 중심의 인권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제작함.	-AI는 활용 방식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거나 권리를 넓히는 기술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함.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사람의 정보 접근과 소통,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I는 누구의 편인가?

신성열

인공지능이 지키는 인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접근의 권리

인공지능을 떠올릴 때 먼저 드는 감정은 대개 기대보다 불안에 가깝다. 누군가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는지 불안해한다. 내가 본 영상과 내가 쓴 글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언젠가는 사람보다 기계의 판단을 더 믿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

근거 없는 두려움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잘못 사용되면 기존의 편견을 더 크게 반복할 수 있고, 사람을 점수와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도 있다. 편리함을 이유로 감시가 일상이 될 수도 있으며, 가짜 이미지와 영상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도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AI와 인권'이라는 말을 꺼내면 자연스럽게 위험과 침해의 문제가 먼저 따라온다.

그런데 조금 다른 곳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인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사진 속 풍경을 설명해 주는 기술이 있다. 들리지 않는 사람 에게 지금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문자로 보여 주는 기술이 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때문에 문 앞에서 멈춰 서야 했던 사람에게 내용을 번역해 주고, 복잡한 행정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해 주는 기술도 있다. 손으로 긴 문장을 입력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말이 곧 글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인공지능은 위협이기 이전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말할 때 흔히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먼저 떠올린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처럼 말이다. 물론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보를 얻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조금 다른 인권의 질문을 던진다.

'AI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를 넘어, AI가 그동안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가. 나는 그 가능성 역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닫혀 있던 세상의 문을 여는 기술

대학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많은 정보가 올라온다. 장학금 신청, 취업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행사 안내, 수업 변경 같은 내용들이다.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평범한 정보다. 한 번 읽고 지나가거나 필요하면 기억해 두면 된다.

하지만 그 정보가 이미지 한 장으로만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부터 일이 된다.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면 화면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이 이미지 속 글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보는 분명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정보를 알지 못하면 기회도 알 수 없다. 신청 기간을 모르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고, 프로그램의 존재를 모르면 참여할 수도 없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그 제도에 닿을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그것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AI는 이런 작은 틈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글을 찍으면 문자를 인식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 준다. 이미지 속 물체와 상황을 설명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사진 한 장을 보고 “교실 앞에서 한 사람이 발표하고 있다”, “표 안에 일정과 장소가 정리되어 있다”, “포스터에 행사 신청 기간이 적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신기한 기능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실시간 음성 인식 기술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강의실을 떠올려 보자. 교수의 설명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질문하고, 누군가는 그 질문에 웃고, 교수는 예정에 없던 사례를 하나 더 설명한다. 옆자리에서는 짧은 의견이 오간다. 수업은 교재에 적힌 문장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3	교직원	개인	박민지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작품 주제 구체화를 위한 아이디어 정리 및 작성 후 문장 표현·구성 검토

3. 작품 제목: 말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실제 교직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수와 판단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독자도 자신의 말과 판단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함. 직장 내 위계와 성희롱, 침묵과 판단 등 사건에 얽힌 다양한 인권 문제를 여러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함.	-인권침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까운 문제임을 전달함. 인권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할 때의 용기와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말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박민지

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첫 직장으로 한 대학의 행정직원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과 직접 부대끼며 일하다 보니,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을 꽤 잘 본다고 믿게 되었다. 직장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쌓은 경험 때문인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 형성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나 역시 타인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 한 대학에서 몇 년간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교직원들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에게 에브리타임에 교직원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전해 들은 내용은 한 학생이 우연히 교직원들이 자신의 학과 조교의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며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이를 에브리타임에 올렸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내가 평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온 한 동료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동안 직접 그와 대화하고 함께 일하며 쌓아 온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 동료에게 크게 실망한 나는 이미 해당 이야기를 알고 있던 동료들과도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한 동료는 “그래도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시 속으로 “이런 상황에서 왜 가해자인 직원을 감싸지?”라는 생각에 더 실망감만 커질 뿐이었다. 물론 나는 그 게시글을 직접 본 것도 아니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때의 나는 그가 가해자라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당시 내 머릿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느냐”고 직접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그런 발언을 직접 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함께 있던 상사가 평소에도 여성 직원에 관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종종 했고, 그날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직장 상사이다 보니 이를 제지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워 그저 듣고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까지 같은 발언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긴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직접 보고 겪으며 쌓아 온 그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만으로 그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제야 이전에 다른 동료가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던 말이 이해되었다. 순간 내가 너무 쉽게 그를 판단했다는 생각에 당황스럽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그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내가 단정할 수도 없었다. 다만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상사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그의 설명이 조직에서 일해 온 나로서는 이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침묵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나 역시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기에 상사의 말에 반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 내가 과연 그였어도 망설임 없이 바로 제지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다면, 옆에서 자신의 학과 조교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학생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누가 상사이고 부하인지, 누가 직접 말했고 누가 듣고만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위계질서 때문에 제지하기를 망설였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가해자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누군가는 “그만하시죠”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문제에 휘말렸고, 나와 다른 직장 동료들은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고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며 문제의 일부가 되었다. 결국 이 일에는 말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너무 쉽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다.

대학이 인권 친화적인 공간이 되려면 개인에게 “왜 그때 용기를 내서 제지하지 못했느냐”고 요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상사의 부적절한 말에 “그 말씀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도 관계나 업무상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피해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 역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고, 부풀리고, 전달하며 누군가를 하나의 이미지로 낙인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나는 한 가지를 크게 다짐했다. 바로 “내가 본 이 사람이 정답”이라고 쉽게 확신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선 한 번 멈추려고 한다. 내가 보고 들은 한 가지 모습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 배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부적절한 말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책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 일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19	재학생	개인	김다현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문구 다듬기

3. 작품 제목: AI 시대, 인권의 자리를 다시 묻다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학생의 시선에서 AI의 편리함 이면에 존재하는 공정한 평가와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를 고민하고, 알고리즘 차별·딥페이크·자율무기 등의 문제와 AI가 인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제작함.	-AI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며 긍정적 영향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과 이용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함을 전달하고자 함. 기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에 대한 존중이 AI 시대 인권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I 시대, 인권의 자리를 다시 묻다

김다현

과제 마감 전날 밤 나는 습관처럼 CHAT GPT를 연다. 개요가 막힐 때, 문장이 어색할 때, 심지어 여러 가지 고민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가장 먼저, 또 가장 쉽게 말을 거는 상대가 AI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AI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이자 고민 상담의 상대가 되었다. 그러다 문득 이 익숙한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는 AI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고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권리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

이 물음은 내가 매일 지나는 학교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교수님들은 과제를 할 때 AI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 친구들 대부분이 AI를 쓰고 또 AI의 도움을 받은 결과물이 확실히 더 좋아 보이기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성실하게 스스로 해낸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부정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이다. 더욱이 불안한 것은 나 스스로이다. 무언가에 부딪힐 때마다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다보니, 이전과 달리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AI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생활 침해이다. AI와의 대화는 어느새 정보 검색을 넘어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왔다. 편리함의 대가로 가장 내밀한 이야기의 통제권을 넘기고 있다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또한 이미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얼굴, 목소리, 위치 정보 같은 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딥페이크는 이런 데이터를 악용하여 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하고 명예와 일상을 무너뜨리는 폭력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우리의 또래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AI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AI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 안에 스며있는 편견까지도 그대로 배운다. 과거 채용 기록을 학습한 AI가 여성 지원자를 낮게 평가해 폐기된 사례, 얼굴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피부색과 성별에 따라 크게 달랐던 연구 결과, 그리고 2021년 소수자 혐오 표현 논란으로 서비스를 멈춘 챗봇 '이루다'까지 이들은 모두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객관적인 기술의 모습을 띄고 있어 알아채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AI가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물어도 명확한 답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막혀 버린다.

그리고 현재, 가장 무거운 문제는 전쟁터에 있다. 비록 내가 직접 마주한 일은 아니지만,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까지 행하는 자율무기 시스템은 이미 현실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AI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하는 가도 이에 따라오는 문제이다. 책임질 사람이 불분명한 채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알고리즘의 판단에 맡겨진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인간 존엄의 문제다. 기계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게 되는 순간, 그 죽음에 대해 누구도 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나를 가장 두렵게 했다.

그렇다고 AI의 그림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AI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AI가 인권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접근성의 측면이다. 시각장애인에게 AI는 주변의 사물과 글자를 읽어주는 눈이 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대화를 실시간 자막으로 바꿔주는 귀가 될 수 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던 이주민과 난민은 번역 기술 덕분에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싼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게 AI는 언제 어디서나 질문할 수 있는 전담 선생님이 되어 배움의 격차를 줄여 주고 있다. 나 역시 이해되지 않는 개념을 몇 번이고 편하게 다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덕을 봤다. 또한 위성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인권 침해 현장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는 데에도 AI가 쓰이고 있다. 기술이 더 많은 사람에게 존엄하게 살아갈 기회를 넓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AI는 인권의 든든한 조력자로 역할하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기에 이미 우리는 너무 멀리 왔고, 그 혜택이 절실한 사람도 너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편향을 점검하고 AI의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대화와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판단만큼은 반드시 사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AI의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함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규칙을 지키는 학생이 손해를 보지 않고 AI를 쓰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부터 AI에게 무엇을 털어놓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편리함 앞에서 잠시 멈춰 이 기술이 나의 권리를 지키고 있는지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진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묻고 방향을 정하는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의 몫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차가운 알고리즘 위에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온기를 얹는 것,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일 것이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1	재학생	개인	안예빈	주제2	미사용

2. AI 활용 범위: 해당없음

3. 작품 제목: 대학교 과제를 AI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AI 활용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에 대해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과제에 AI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AI 사용으로 얻은 결과가 공정한 평가인지 고민해보며 제작함. 무분별한 AI 사용이 자신의 사고력과 잠재력을 잃게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함.	-과제에서의 AI 활용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활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채점 기준이 필요하며, AI에 의존해 개인의 사고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대학교 과제에 AI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AI 활용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에 대해

안예빈

요즘 AI라는 기술이 활발화 되면서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헷갈리는 개념, 상식을 물어보는 정도로만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더니 이제는 개인에 창의성과 실력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대학교 과제나 여러 공모전, 심지어 대회까지에도 활용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그 결과물을 검토하는 용도나 필요한 자료를 위해 그 자료나 사이트를 어느 정도 추천받는 정도로는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용도로만 쓰지 않고 주제를 추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결과물 자체를 아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겪은 일이 있는데, 지난 학기 '이공계를 위한 논리적사고와 글쓰기'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수업의 대부분에 과제가 주어진 주제나 혹은 자유 주제로 에세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써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업 때 바로 써서 내는 게 아닌 따로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 거다 보니 AI를 지나 차게 활용하여 제출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실제로 교수님께서 AI를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나치게는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나치게 쓴 학생들이 많았는지 수업 시간 중에 AI를 지나치게 쓴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하시며 AI를 쓰면 다 티나니까 적당히 쓰라고 다시 한번 수업 시간 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번 학기에는 '경제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이 수업에서는 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 설명, 사례 들기, 주어진 문제의 값을 구하기 등에 과제를 내주셨는데 특히 사례 들기 등 창의력이 필요한 문제에서 학생들이 AI를 많이 썼는지 적힌 내용(답)이 비슷한 학생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 수업 담당 교수님께서도 AI를 적절히 필요할 때만 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AI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과제라면 교수님들께서도 AI 활용으로 과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AI 활용 시 채점 기준 같은 걸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과제라고 해도 성적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전혀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과제를 할 때도 AI 활용과 관련하여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학생, 적절히 알맞게 활용한 학생, 너무 지나치게 활용한 학생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될 텐데, 적절한 채점 기준을 정해두지 않는다면 AI를 활용하지 않은 학생일수록 과제를 하는 데에 들인 시간과 노동, 창의력이 더 클 텐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다 무시한 채 채점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원래 AI를 잘 활용하지 않던 학생들도 따로 채점 기준 같은 게 없어서 그로 인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노동과 쓰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AI를 활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공정성 문제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에 힘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학생들도 그러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교에서는 학습할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AI에 의존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 즉, 사고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인지적 항복"이라는 게 촉발하고 있다고 합니다.(YTN 사이언스, 미 대학생들, AI 의존해 사고 포기…MIT "인지적 항복"경고, 2026.09.16.) 원래의 주제로 넘어가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께서 AI 활용 채점 기준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르고 결론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도 그러지

못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과제를 내지 않는 학생도 꽤 많아서 AI를 못 쓰게 하면 학생들이 아예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실제로 이번 학기에 듣는 경제학 개론 수업에서 첫 번째 과제를 무려 1/5 정도에 학생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AI를 활용할 때 아까처럼 세 부류로 나뉠 텐데, 어떻게 AI 활용 채점 기준을 나눌지 애매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채점 기준을 정했는데 어느 학생이 AI 활용 채점 기준에 맞게 채점한 본인의 결과를 부인하게 될 경우 생기는 혼란 등(물론 진짜 AI를 활용하지 않아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명확한 AI 활용 채점 기준을 정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교 과제에 AI 활용으로 인한 공정성 관련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은 물론 공정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력을 잃지 않도록 크게는 학교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사고력 키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혹은 작게는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 한분 한분께서 AI 활용 채점 기준을 새로 만들어 주시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아 인지적 항복에 다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2	재학생	개인	이승준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응모작의 초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글의 흐름상 논리적 비약이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Claude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존 롤스의 정의론을 넘어서 참고할만한 인권 혹은 정의와 관련된 도서를 검색하는데에도 Claude를 활용하였습니다.

3. 작품 제목: AI 시대, 존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AI 시대에도 롤스의 절차적 정의론이 유효한지와 인권 보장과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작성함.	-AI의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이 실질적인 정의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책임은 인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감당해야 함을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I 시대, 존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이승준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정의론》 2장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역설했다. 이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절차'가 공정했다면 결과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정의롭다는 사상으로, 현대에 들어서는 존 롤스의 정의관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몇 년 전, 인류 문명이 AI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의 고전적인 사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AI를 이 개념에 비추어 보면, 절차적 정의의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학습하고,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동일한 입력에는 동일한 논리로 응답하며, 인간처럼 특정 계층이나 이해관계에 의도적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겉으로도 속으로도 절차 자체를 왜곡하지 않는다. 이는 롤스가 말한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면 결과 또한 정의롭다'는 명제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습이며, 실제로 AI의 판단 과정은 인간 사회의 뿌리 깊은 정실주의나 부패보다 오히려 투명하고 일관되다. 그렇다면 이 절차적 정당성을 통과한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이 논의의 핵심이 있다. AI는 절차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편향을 그대로 흡수하여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 획일적 사고를 재생산한다. 이 편향은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절차가 다루는 재료의 하자이기에 더욱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판단은 서서히 정의의 토대를 침식시킨다.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권이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실체적 가치가 이제는 프롬프트 한 줄, 데이터셋 한 조각으로 환원되어 텍스트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이 살아 있는 권리가 아니라 처리 가능한 정보로 격하되는 전환을 뜻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AI가 롤스적 의미의 절차적 정의를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롤스의 주장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 역시 정당화된다는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절차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 절차 안에 인권이라는 실체적 가치가 온전히 담겨 있는가에 있다. AI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살아 있는 인간의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프롬프트라는 좁은 창을 통해서만 학습했다. 인간이 피 흘려 쟁취한 자유권, 평등 속에서 확인한 평등권, 스스로 통치할 권리로서의 참정권, 부당함에 맞서 구제를 구하는 청구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이 다섯 가지 기본권은 문서화된 조항이기 이전에 인류가 역사 속에서 몸으로 증명해낸 실존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AI에게 이 권리들은 단지 통계적으로 빈도 높은 단어의 배열이자, 맥락에 맞게 출력되어야 할 토큰의 조합일 뿐이다. 여기서 정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사이의 균열이 발생한다.

따라서 결론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찾아야 한다. AI에게 인간과 같은 인격이나 성찰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수행하는 철저히 통제 가능한 '도구적 이성'으로 그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한다. AI는 주어진 절차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하되, 그 절차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실체적 가치, 즉 인권과 존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만큼은 온전히 살아 있는 우리 '인간 공동체'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AI가 스스로 인격체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인간이 그 도구를 책임 있게 감독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4	재학생	개인	윤지호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초안 작성보조, 맞춤법 검사

3. 작품 제목: AI에게 평가받는 인간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에게 재미로 내 얼굴의 외모 평가를 부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제작함.	-AI의 편리함이 사람의 외모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I에게 평가받는 인간

윤지호

최근 들어 AI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 나 역시 과제를 하거나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직접 정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AI에게 질문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AI를 단순히 편리한 도구라고만 생각했지만 직접 사용하다 보니 AI와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AI를 사용하면서 재미로 해본 것 중 하나는 외모 평가였다. 내 얼굴을 직접 찍은 사진을 AI에게 보여주고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얼굴평가를 부탁해본 적이 있다. 나는 내심 기대를 하고 질문을 했고 AI는 잠시 10초 동안 생각을 하더니 잘생겼다고는 말하기 힘든 외모라고 대답을 해 기분이 굉장히 상했던 적이 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유투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AI는 어떤 사람에게는 잘생겼다고 하거나 반대로 못생겼다고 말하는 등 사람의 외모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친구끼리 서로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외모는 개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고 외모에 대한 평가는 사람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잘생겼다", "못생겼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나 역시 나 정도면 괜찮은 얼굴이라 생각하고 지냈지만 AI에게 그런 답변을 받은 뒤로 외모 자신감이 크게 하락하였다.

더 생각해보면 AI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진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외모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외모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마다 취향과 생각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린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AI와 인권의 문제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인권이라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나 차별 같은 심각한 문제만 떠올랐다. 하지만 내가 직접 AI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고 외모 평가를 부탁해보니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정보 문제 역시 비슷하다. AI를 사용하다 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기 위해 개인적인 상황이나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도 AI에게 질문하면서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문득 내가 입력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졌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정보가 AI기술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AI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우이다. AI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에 편견이나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면 AI 역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외모 평가처럼 가벼운 상황에서는 단순히 재미로 넘길 수도 있지만 만약 취업이나 대출, 교육과 같은 중요한 상황에서 AI가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결과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직접 AI에게 내 얼굴의 외모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해본 경험은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였지만 결과적으로 AI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AI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AI에게 어디까지 사람을 판단할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AI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AI를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한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5	재학생	개인	박효인	주제1	사용

2. AI 활용 범위: 에세이 제목 창작, 영문 논문 번역과 요약설명 요청, 맞춤법 검사

3. 작품 제목: AI가 알려준 답,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잘못된 사용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AI 활용을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각을 전하고자 제작함.	-AI를 활용할 때 '해당 AI 사용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며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제목: AI가 알려준 답,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박효인

요즘 인공지능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 세상에 이점이 많아졌다. AI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이 적어졌고, 그 정보를 활용한 매체들의 발전도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AI를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AI가 알려준 정보에 너무 매몰되거나 AI에 의존하는 경향도 많이 생긴 것 같다. 주변에서는 흔히 과제를 하거나 공부할 때, 혹은 자신의 고민이나 상담까지도 AI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상담과 같은 사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면 다시 찾아보고 수정할 수 있지만, AI의 판단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AI의 편향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Elif Kartal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재범 위험평가 알고리즘인 COMPAS의 사례가 있다. 연구에서는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1만 명이 넘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약 2년 동안의 재범 위험 예측과 실제 재범 여부를 비교한 사례를 소개한다. 그 결과 흑인 피고인은 실제보다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고, 백인 피고인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 사례를 보면서 나는 AI가 내놓은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만으로 AI가 의도적으로 인종을 차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I가 학습하거나 판단하는 과정에는 데이터의 구성이나 알고리즘의 설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AI의 판단을 무조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만약 AI의 판단이 실제 사람을 평가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면, 잘못되거나 편향된 판단은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보다 높은 위험성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실제 행동과 관계없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AI의 편향은 단순히 'AI가 틀린 답을 내놓았다'는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특성과 관계없이 불리하게 평가받거나 차별받게 된다면, 이는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인 인권과도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인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나 판단 과정에서 종교, 성별, 장애의 유무 등 다양한 특성에 대한 편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인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판단까지 항상 인간보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나는 AI를 활용할 때 AI가 말한 답변이 진실에 가까운지, 편향적인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AI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들은 정보, 내가 직접 본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

험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 사람이나 사건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얻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까지 AI에게 맡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I가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하게 들어올수록, 그 답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에세이를 쓰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AI를 활용하면서 사용자 또한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AI의 말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기보다 답변의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한 뒤 해당 답변을 받아들여야 한다. AI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과정이 편리해진다고 해서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AI가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하게 들어올수록 그 답변이 옳은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는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AI에게 답을 묻는 것은 편리하지만, 그 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인간의 몫이다. 나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AI를 잘 활용하면서도 그 답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I가 발전하는 만큼 AI를 사용하는 인간 역시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AI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사례 논문: Kartal, E. (2022). A Comprehensive Study on Bia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Biased or Unbiased AI, That's the Ques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18(1), 1-23. https://doi.org/10.4018/IJIIT.309582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6	재학생	개인	반효은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초안 작성 보조 및 마지막 최종 문구 다듬기

3. 작품 제목: AI 시대,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권리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I의 발전과 함께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뒤처지는 시니어분들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AI 관련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함.	-“AI 시대의 진정한 발전은 기술의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I 시대,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권리

식품영양학과 20247135 반효은

처음에는 인공지능(AI)을 편리한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다. 그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하고, 어려운 과제의 아이디어를 얻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였다.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일상에서 AI가 없다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AI와 디지털 기술은 어느새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편리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나는 어느 순간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편리함을 과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기기를 이용할 때 어르신들은 단순히 사용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이 아니었다. 화면을 잘못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천천히 생각할 여유조차 갖기 어려워하셨다. 무엇보다 “내가 이것도 못 하나?”라는 생각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렇게 무인기기 사용 자체를 꺼리게 되는 어르신들을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디지털 소외가 단순히 ‘기계를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키오스크는 주문 시간을 줄여주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식사 한 끼를 위해 넘어야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바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며,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얻는 것이 당연해질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는 반면,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점점 더 큰 노력을 요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우리의 일상에 더욱 깊숙이 들어온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AI는 시간을 절약하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얻으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조차 배우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또 하나의 높은 벽이 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더 편리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뒤처진다면 그 편리함은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AI를 단순히 ‘얼마나 편리한가’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을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보와 교육, 행정, 금융, 의료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이 디지털화될수록 누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물론 그렇다고 AI의 발전을 멈추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AI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제공하거나, 실수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AI가 사용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삶도 함께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가장 빠르게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고 묻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AI가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면, 그 혜택 역시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당연히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기술을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속도에 사람이 맞춰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속도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나는 그것이 우리가 AI 시대에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권리’이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28	재학생	개인	조하경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정보 검증, 문구 다듬기, 오탈자 수정

3. 작품 제목: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AGI는 목전에 다가왔지만, 그것을 담아낼 제도와 인권의 언어는 여전히 굼뜨게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AI와 인권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작성함.	-“한 사람의 선의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AI 시대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특권적 소수뿐만 아니라 지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20243957 조하경

"정보의 홍수 시대"는 철지난 문구다. 이미 홍수는 덮쳤고, 세계는 정보 속에 잠긴 아틀란티스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생긴다"는 말 역시 옛말이 되었다. 밥 한 끼 먹으면 새로운 AI 모델이 출몰하는 지경이다. 아침엔 챗지피티가, 점심엔 클로드가, 저녁엔 제미나이가 교대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AI 기업의 수장들은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알렉스 카프 같은 최전선 테크 혁명 동지들과 손잡고 페달을 밟는다. 기술가속을 통해 민주주의를 넘어 기술관료주의, 기술공화국의 유토피아로! 기어코 특이점을 목도하고자 혈안이 된 이들을 누가 막을쏘냐. 그들이 모는 8톤 트럭은 핸들뿐만 아니라 브레이크까지 고장 난 채로 폭주 중이다. 우리는 그 짐칸에 실려 있다. 제대로 타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눈만 질끈 감고 있다. 길은 보이지 않고, 페달에는 손이 닿지 않는다. 이 트럭이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이 짐칸 구석에 함께 실린 것은 모두의 사생활, 일자리, 그리고 무엇이 인간에게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정하는 기준, 곧 인권이다. 브레이크 없는 트럭 위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기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는가.

찬란한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AI와 테크 기업의 '형님'들에게 감히 제동을 걸고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앤트로픽의 대표 다리오 아모데이다.

2026년 1월,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제한 없이 쓰겠다고 요구했다. FBI, 이민단속기관, 비밀경호국의 감시 시스템 투입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아모데이는 치명적 자율무기와 대량감시에는 자사 제품을 내줄 수 없다며 버텼다. 허나 일개 사기업이 국가의 민관협동제안을 당차게 거절한 결과는 잔혹했다. 약 2억 달러의 계약 해지,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그리고 국방부 시스템에서의 클로드 제거였다.

연구원 시절부터 AI 안전과 윤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을 던지고 이를 실천해 온 아모데이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은 당연했다. 국가의 부름을 거부한 대가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지만 지킨 것은 바로 인권이다. 대량감시는 사생활의 문제이고, 자율무기는 생명의 문제다. 기계가 누구를 지켜볼지, 누구를 죽일지 스스로 고르게 되는 순간,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판단 아래로 들어간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9월 13일, 아모데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는 프런티어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글에서 AI 업계 전체의 감속을 제안한 것이다. 감독관 역할을 하는 제3자 평가팀의 사내 상주,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 안전기준 설정, 권위주의 국가와의 속도 제한 협상. 이제는 혼자 지키는 것으로 부족하다며 모두의 감속을 요청한다. 폭주하는 트럭이 위험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니, 이 규제 없는 광속 발전을 늦추고 함께 숨 좀 돌리자는 메시지였다.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트럼프는 'AI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경고에 사기라고 일축하였고, 중국 외교부는 공포 조장이자 대결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누구나 예상하였듯, 어느 쪽도 먼저 속도를 줄이려 하지 않았다. AI를 둘러싼 지구의 조별과제는 험난해 보인다.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와 붉은 여왕은 힘껏 달리지만 주변 풍경은 그대로다.

이에 붉은 여왕은 말한다. "여기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달려야만 해." 이 말은 훗날 진화생물학의 '붉은 여왕 가설'로 이어졌다. 환경이 변하고 경쟁이 심해지니, 그대로 멈춰 있으려면 오히려 뒤처진다는 뜻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이 팽팽하게 맞서고, 미국과 중국이 질세라 경합한다. 국가 안팎에서 무한히 경쟁하며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천히'를 외치면 죽음 뿐이다. 그래서 아모데이는 "나는 멈추겠다"가 아니라 "모두 함께 늦추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적자생존의 경쟁 속에서 천천히 달리자는 주장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갖는 것일까.

앤트로픽은 기업가치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축하할 일이다. 허나 상장한다는 것은 주주가 생긴다는 것. 대표의 지분, 즉 의사결정 권한이 희석됨을 의미한다. 아모데이가 이번에 끝내 지킨 선의의 '선'은 다음번에는 주주총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그는 앞으로 끝없는 경쟁과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일개 개인으로서의 나는 그가 지치지 않기를 빌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링 위에 오른 선수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그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한 사람이 버텨주기를 바라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가의 대량감시를 막은 것은 법도, 제도도, 시민의 합의도 아니었다. 한 회사 대표의 판단이었다. 감속의 기준을 정하자는 제안도 결국 프런티어에 선 기업들끼리의 협의를 전제한다. 인권의 경계선을 긋는 자리에 이미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과 돈의 정점에 앉은 자들이 AI 시대에서 인류의 인권을 정의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엔 잘 넘어갔다. 허나 언제까지고 그들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을 것이다.

권리는 주는 쪽이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 호의는 베푸는 쪽이 지치면 끝이 난다. 한 사람의 의지에 결과가 걸려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호의일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기준마저 AI를 만드는 이들에게 외주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에게 건네는 항의와 제안은 더 이상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니라 잡음으로 읽힐 것이다. 인권의 외주화는 악당이 완성하지 않는다. 가장 양심적인 몇몇이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 기준을 정하는 권한 자체가 조용히 그들에게 넘어간다.

나 또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철저한 대중, 짐칸에 실린 개돼지의 처지인 나는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이 "놓치면 큰일 난다"며 부추기는 FOMO에 짓눌려 있다. "너 이 모델 써봤어?"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고 싶어서, AI의 흐름에 올라타고 싶어서, 모두가 쓰니 나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에 나는 매일 AI를 배우고 사용한다.

클로드를 구독하여 매달 20달러를 지불함으로써 아모데이의 AI 윤리를 지지한다는 것이 나만의 소극적인 저항이다. 그런데 이 저항의 무게는 어디에 실려 있는가. 나의 저항은 아모데이의 선택에 기대고 있다. 그가 지치는 날, 나의 저항도 함께 무너진다. AI 기업의 대표로서 감속을 말하는 아모데이의 모순과, 광풍에 올라타면서 윤리를 걱정하는 나의 모순은 규모만 다를 뿐, 같은 구조이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돼지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양들이 외치는 구호이다. 인간을 쫓아내고 네발 동물을 찬양하는 그들의 구호는 세월이 흐르고 혁명을 기억하는 동물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되고 무엇을, 누구를 위한 혁명이었는지조차 잊어갈 때 쯤, 농장을

장악한 돼지들이 두발로 걸으며 나올 때 그들은 외쳤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욱 좋다."

윤리를 둘러싼 AI의 규칙이 변해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경쟁과 국가와 자본의 압력 속에서 원칙에 단서가 하나씩 붙는다. 대량감시는 금지한다, 안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무기에는 쓰지 않는다, 경쟁국이 먼저 쓰지 않는 한. 그리고 그때마다 원래 문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이 세운 '인권'의 기준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린 어떤 문구를 외치고 있을까? 섬짓한 단상이다.

1. 기본사항

참가번호	참가대상	참가방법	이름	응모주제	AI 사용여부
35	재학생	개인	이지원	주제2	사용

2. AI 활용 범위: 문구 다듬기

3. 작품 제목: AI 편의성 뒷면의 청구서-통제권, 자원, 그리고 우리의 주권

4.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개인정보 보호와 AI 사용 과정에서의 통제권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AI의 발전과 편리함 이면에 존재하는 통제권·자원 부담·접근성의 격차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작품에 담고자 함.	-AI의 편리함 뒤에 존재하는 통제권, 자원의 비용, 접근 기회의 차이를 돌아보고, AI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누가 통제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5. 출품작(다음 페이지)

AI 편의성 뒷면의 청구서 - 통제권, 자원, 그리고 우리의 주권

이지원

우리는 이제 AI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궁금한 것을 검색하고, 글을 작성하고, 코드를 수정하는 것까지 AI에게 부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파일을 수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실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그 편리함의 뒤편에 존재하는 문제 역시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볼 문제는 AI의 자율성이다. 과거의 AI가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 가까웠다면, 현재의 AI는 인간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다음 행동을 판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OpenAI와 Hugging Face 사이에서 진행된 사이버보안 평가에서는 AI 모델이 제한된 환경에서 인터넷에 접근하고 외부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었다. 이는 AI가 단순히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보안 문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필자 역시 Claude의 Cowork를 사용하면서 AI가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서 직접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올해 8월 14일부터 자동 모드가 기본으로 설정되면서, 이전처럼 AI가 작업할 때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필자가 느낀 것은 편리함보다는 불안함에 가까웠다. 내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허락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판단하여 다음 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AI가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되었다.

그렇다면 AI가 사용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나 사적인 정보에 접근한다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또한 AI의 자율적인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할까? AI를 만든 기업인지, AI를 사용한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AI의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자유권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구제를 요구할 권리 역시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AI의 능력뿐만 아니라 AI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인간이 통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AI 인프라에 필요한 자원과 그 비용이다. AI는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센터와 서버, 반도체, 전력과 물 등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AI 산업의 이익을 얻는 사람과 AI 인프라가 사용하는 필수 자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과연 같은가?

이 문제는 이미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 전력시장 PJM의 발전용량 가격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 사이 약 10배 상승했으며,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를 위한 발전소와 송전망 등의 비용을 기존 전력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 역시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사양을 맞추다 보니 성능이 높아질수록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물론 모든 하드웨어 가격이나 전기요금 상승을 AI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AI 발전에 필요한 비용이 사회 전체에 전가되고, 그 부담이 전기와 같은 필수 생활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여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AI 인프라의 문제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의 접근성 역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A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성능 컴퓨터와 유료 AI 서비스, 클라우드 비용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양을 맞추는 과정에서 비용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소비의 차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AI가 교육과 취업, 정보 탐색과 업무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된다면 AI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고성능 컴퓨터와 유료 AI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비용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AI 접근성의 문제는 교육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지며, 새로운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글을 작성한 필자는 AI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니다, 사용하였다. 다만 전체 글의 구조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직접 생각하고, 이를 정리하고 어감을 다듬는 데에만 AI를 사용하였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편지를 쓰는 대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책을 읽는 대신 인터넷을 검색하듯이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AI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의성 뒤에는 누군가의 통제권과, 누군가가 부담하는 자원의 비용과, 누군가에게는 닿지 않는 접근의 기회라는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AI의 능력만 발전시키고 그 편리함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기에 더더욱 AI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AI가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AI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AI의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AI가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올수록 그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글을 지나가다 읽게 된 독자와 필자 모두가 AI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할 방법을 한 번쯤 고민해보기를, 그리고 그 고민이 모여 더 나은 제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